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02.3705.60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서천 041.951.6400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성남 031.708.2503
고양 031.919.4040	<b>마</b>	세종 044.865.0872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속초 033.635.3523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수원 031.252.5111
광주 062.524.3511	<b>바</b>	순천 061.744.7990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b>아</b>
<b>나</b>	부천 032.668.9700	안동 054.854.5482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산 031.483.6536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안양 031.455.2700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양산 055.367.1144

울산	전주	천안
052.247.3520	063.224.5501	041.575.0961
원주 033.742.6090	제주 064.711.8322	청주 043.265.3700
의정부 031.853.6332	제천 043.646.6009	춘천 033.254.4878
익산 063.857.8910	진주 055.755.3463	충주 043.848.3240
인천 032.424.0524	진해 055.542.0020	<b>타</b>
<b>자</b>	창원 055.283.9488	통영 055.646.2547
전주 063.224.5501		<b>파</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진해 055.542.0020		<b>하</b>
<b>차</b>		하남 031.793.7771



2014.12

**한국YWCA**

**이달의 생각**  
 한 해를 보내며 잊지 말아야 할 것

**특집**  
 2015년 여성정책 · 탈핵 관련 정책 미리보기

**이달의 현장③**  
 2014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연구보고회

2014 한국YWCA연합회 10대 뉴스



###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진리와 사랑, 그리고 생명과 평화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 곧 세상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상상속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던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일터에서 일찍 나온 품꾼이나 뒤늦게 일하러 나온 품꾼에게도 동등한 삯을 주신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제'라는 우상의 부속품과 소모품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의 발걸음은 좀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된 소식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글 / 최병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한 해를 보내며 잊지 말아야 할 것 | 문권희
- 05 성탄예배 그리스도 주님 만나기 | 안재웅
-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12월의 한국YWCA | 유성희
- 특집** 2015년 여성·탈핵 관련 정책 미리보기
  - 08 기획 ① 2015 여성 정책 - 여성가족부 2015년 예산(안) | 편집실
  - 10 기획 ② 2015 탈핵 정책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전환 | 이유진
  - 12 기획 ③ YWCA의 2015년 탈핵운동 | 이윤숙
- 14 성인지통계 대졸자 성별 취업률 통계 비교
- 칼럼**
  - 16 탈핵 전기 수요 줄이면 탈핵 가능하다 | 김익중
  - 18 여성 드라마 '밀회'로 읽는 2014 여성 담론 | 김미라
  - 20 인권 매일 매일이 인권의 날!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 | 김정린
  - 22 청년 동부지역 대학청년YWCA 회원의 밤 | 윤나라·심승희
- 24 이달의 묵상 우월함과 영접 | 이천진
- 27 이달의 현장 ① 제5차 YWCA 돌봄정의포럼 | 정서연
- 28 이달의 현장 ② 2014 돌봄협동조합 해외 연수·돌봄 임원 워크숍 | 김영미·엄계현
- 30 이달의 현장 ③ 2014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연구보고회 | 이혜련
- 32 이달의 현장 ④ 6개 정회원YWCA 모금워크숍 후속 보고 II | 대전YWCA
- 34 지역운동이야기 2014 YWCA어린이집 중견교사 연수 | 윤량·오선희
- 36 북한어린이돕기 익산YWCA 북한어린이돕기 | 최현자
- 38 2014 한국YWCA연합회 10대 뉴스
- 40 연합회 소식
- 41 회원Y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 42 회원YWCA 소식
- 49 2014 월간(한국YWCA) 목차 색인
- 51 2014 한국YWCA 출간물 소개



#### 표지이야기

부산YWCA 어린이집에 만 4세에서 5세 친구들 100명이 북한 친구들과 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눴다. 음식 남기지 않고 먹기,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등의 활동을 함께 하며 의미를 더했다. "북한 친구들아, 아프지 말고 밝은 얼굴로 꼭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자." (사진제공: 부산Y 어린이집)

#### 1월 한국YWCA 주요일정

- 1월 5일 시무식
- 1월 8일 신년예배
- 1월 21일~23일 Y-틴 전국협의회

제50권 제10호 통권 516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문권희·백수경·신선·원영희·윤혜원·이경순 편집 박은실·이주영·전하에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http://www.ywca.or.kr 계좌번호 농협 33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편집디자인 (주)세아미디어 (02-730-0746) 인쇄 충무기획인쇄 (02-2263-3223)

한국YWCA연합회는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새해에는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 해를 보내며 잊지 말아야 할 것

글 | 문권희 (연합회 실행위원, 홍보출판위원장)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씀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잠언 4:5)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정표가 꽉 차있다. 특별한 일정이 없더라도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 버리기 십상이다. 해마다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한 해였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아 있다.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과 추악한 부패상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어 전 세계가 경악한 씻을 수 없는 사건이었으며 국민 스스로에게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수가 아닌가!' 라고 되물어 보며 한탄하게 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과연 어떻게 이 사건의 총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지 정확히 다시 되돌아보아야 하며 또 냉철히 다짐해야 한다. 하늘나라에 있을 희생자들,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떨쳐버릴 수가 없다.


매주 화요일 명동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열정적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단장기 배포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움직임으로 가득하다. 초기에는 생소함과 대중들의 냉소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명동 사람들에게도 화요일의 행사가 되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경제 논리에 맞춰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과 나태함이 빚어낸 욕망의 결과를 보여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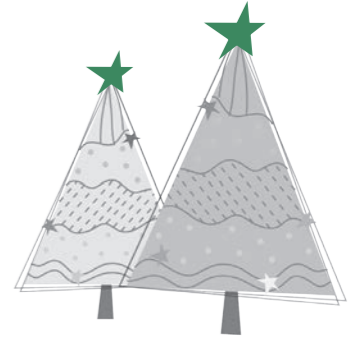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명확한 사실은 이 사건이 한 차례의 해프닝으로 잊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YWCA 100주년을 바라보며, 전국 52개 회원YWCA가 함께 호흡하며 이제까지 이어 온 Y의 역사성과 생명력을 통해 살아있는 YWCA를 느낄 수 있다. 월간<한국YWCA>가 매월 출간될 때마다 각 지역의 활동소식은 마치 큰 잔치가 벌어지는 듯 항상 회원YWCA의 활기로 가득하다. 회원Y들이 서로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이며, 각기 전문성을 살려 각각의 운동들이 특화되고 발전되어, 저마다의 고유함을 지녀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동은 우리들만의 활동을 넘어 대중과 함께 눈을 맞추어야 한다. 해마다 주최하는 YWCA의 '좋은 TV 프로그램 시상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공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취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위해 전국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대중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메시지가 화답의 소리로 돌아오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내년에도 기대해본다.

2014년도 이제 저물어 간다. 새해를 맞아 새 각오로 시작하기 위해, 특별히 올해는 남은 기간 동안 자기 반성의 시간과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는 지혜가 더 필요할 것이다. 고단하고 힘든 세대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고 살려준 모르드개의 양딸 에스더. 그들의 결단력과 침착한 지혜와 용기를 묵상해 본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마음판에 새겨 본다. 

# 그리스도 주님 만나기



글 | 인재웅 목사 (한국YWCA전국연맹 직전 이사장)

##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올 한해도 벌써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겨 주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생명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우리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수의 탄생 배경은 이렇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14절). 천사가 말한 ‘하늘에는 영광’의 ‘독사(Doxa)’라는 말은 ‘평판’이란 뜻으로 영예로운 평판 또는 존경받는 평판을 지니고 예수께서 탄생한 것임을 말한다.


또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평화라는 단어 ‘에이레네(eirene)’는 근본적인 평화, 즉 모든 사람 전부의 안전 또는 구원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롬 5:1)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엡 4:3, 롬 12:18)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에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이고 있다. 펠리컨(Jaroslav Pelikan)은 예수를 18가지 타이틀로 설명했다. 랍비, 왕 중의 왕, 우주적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평화의 왕자, 해방자, 세

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를 설명한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숨겨진 그리스도’라고 했고, 콕스(Harvey Cox)는 ‘익명의 그리스도’라 불렀다. 성경은 예수를 로고스(Logos)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밝혀 주고 있다.

우리는 억지로 꾸며낸 평화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평화의 주인은 파스 크리스티(Pax Christi)이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사 9:6)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원수나 박해자 모두를 그가 치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 복음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국YWCA연합회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란 표어를 내걸고 활기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가 생명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정의와 성원을 보낸다. 생명의 존중, 폭력의 배격, 갈등의 해결, 정의 평화의 증진, 인권의 보호, 보편의 가치 보전 등에 골고루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세상을 바꾸는 YWCA가 되기를 바란다.

다윗 왕을 계승한 새 다윗(New David)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는 유대인의 왕(King of the Jews)이며 우주적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약속된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다.’고 새로 태어난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양 아흔아홉 마리를 우리에게 둔 채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스도 주님은 온 땅에 충만해 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 12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Special  
특집

12월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 메시지가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평화의 종소리가 올해에는 더 따뜻하고 의미있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주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을 맞아 '그리스도의 현존'이 YWCA가족들을 통해 따뜻한 생명의 온기와 희망의 소식으로 세상 곳곳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YWCA연합회 사무실 전체의 LED 교체 공사를 마쳤습니다. 초기 공사의 예산이 많이 들어 작년에는 1, 2층만 교체했고 1년간의 전기요금 절감분을 측정한 결과, 투자대비 효과가 검증되어 전체 건물의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에너지 소비와 적정규모의 생활환경을 이루는 생활 실천운동도 회원Y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핵운동이 우리 삶의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이루는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회원YWCA의 모금활동을 지원하고자 2년째 시행된 모금워크숍이 많은 성과를 가졌습니다. 작년에 열린 준회원 YWCA 모금워크숍에 이어 올해는 정회원 Y 중 대전, 부산, 서울, 순천, 전주, 청주YWCA가 참가하여 YWCA운동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모금의 기초임을 확인했고, 철저한 내부 분석과 자기 결단을 통해 진정성을 가진 모금운동을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모금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회원YWCA의 사례들이 작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순천YWCA에서 합창단 공연으로 진행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액 2천2백만원을 연합회에 전달해주셨습니다. 협력해주신 회원YWCA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 YWCA 돌봄정의포럼'이 5회 포럼을 모두 마쳤습니다. 돌봄노동이 가진 문제와 '돌봄노동의 사회화'의 개념

과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 포럼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돌봄노동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한 지역포럼이 형식과 내용에서 현장성을 담은 포럼으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YWCA정체성에 맞게 돌봄운동을 펼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이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돌봄사회의 비전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포럼의 내용을 담아 『여·세』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Y 포럼』은 정의, 평화, 생명운동의 이론과 현장 이야기를 매년 하나씩 담는 것이고, 『여·세』는 Y 포럼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세상' 등 여성이 중심이 되어 세상과 적극적인 관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함축된 의미로 제작하는 YWCA 정론지입니다. 2015년은 '청년과 평화'를 주제로 평화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WCA의 정의, 평화, 생명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2월 한 달간 연합회는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합체의 특성으로 연합회를 포함, 회원Y와 부속시설 전 영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분석과 현 시점에 요구되는 사안들이 사업계획에 반영됩니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해결로부터 중장기적 비전의 설정, 100주년 준비 등 많은 요청과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YWCA는 이 땅에 기독교 여성운동기관을 세우신 의미를 되새기며 역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매 순간 마음과 자세를 다듬으면서 회원Y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지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에도 Y가 있어야 할 모든 현장에서 '생명의 바람'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존재하기를 소망하며, Y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기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

## 2015년 여성·탈핵 관련 정책 미리보기

- 기획 ① \_ 2015 여성 정책 - 여성가족부 2015년 예산(안) | 편집실
- 기획 ② \_ 2015 탈핵 정책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전환 | 이윤진
- 기획 ③ \_ YWCA의 2015년 탈핵운동 | 이윤숙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과 안전한 청소년활동 지원에 중점

글 | 편집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2014년 9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소관 2015년 예산(안)을 총 예산 규모 6,424억원(기금 포함)으로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14년 5,793억원 대비 10.9% 증액된 규모로, 국가 전체 예산이 2014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중점이 되는 영역 중 첫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양육과,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을 강화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부분이다. 예산(안)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예산(안) 편성 중점사항]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및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년 3월), 시행(15년 3월)
- ▲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년 5월), 시행(15년 5월)
-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체계 강화 및 피해자 치료·회복 및 보호·자립지원 확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치료와 맞춤형 지원 확대

**한부모·맞벌이 가족 자녀양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전국 171만 가구로 추산되는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육아, 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어 빈곤 문제에 매우 취약한 상

### 한부모가족 관련 201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 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2014년) 516억원 ➔ (2015년) 791억원(증 275억원)
  - 양육비 지원 확대 : 만12세미만 자녀에 대해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및 실지원인원 반영(증 208억원)
    - 아동양육비 단가 : 월 10만원(2015년)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운영 : (신규 67억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3월 말 개원 예정
    - 양육비 상담, 당사자 간 합의 지원, 법률지원등 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 2) **아이 돌보미 수당인상 및 4대보험 현실화**
  - 아이돌보미 수당 : 시간당 5,500원(2014년) ➔ 시간당 6,000원(2015년)
  - 아이돌보미 4대보험 : 49억원(2014년) ➔ 10,000명 67억원(2015년)

태이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172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353만원의 절반 미만이다. 자립 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안정적 양육과 생활 기반이 조성될 경우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 가능하므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14일 '한부모가족 종합지원 TF'

의 보고에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강화, 생활안정 지원 및 정서·심리적 지지 등 3개 영역에서 7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한부모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에서 올해 11월부터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시작했다. 고용센터(83개소)에서 한부모 시설(107개소)·센터(30개소)로 찾아가 초기상담 및 희망자 모집,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후 취업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140개소)를 통한 한부모 취업지원 확대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또한 내년에는 서울 지역에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안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센터 지정, 프로그램 확대, 찾아가는 상담 전문인력과 쉼터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2016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에의 접근성을 높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활동 안전과 관련해 사전인증 의무화·신고제 확대(2014년 7월)로 인증심사와 현장이행 확인을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양

### 안전한 청소년활동 관련 201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 1) **청소년 활동공간**  
595억원(2014년) ➔ 838억원(2015년)
  - 수련관 10개소(145억원), 문화의집 21개소(162억원), 특화시설 2개소(83억원), 기능보강 75개소(266억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50개소(182억원)
- 2)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367억원(2014년) ➔ 455억원(2015년)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200개소(증 146개소)
  -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확충 : (2015년) 200명(증 44명)
  - 청소년 쉼터 확대 : (2015년) 119개소(증 10개소)

한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확보한다. 2015년 신규 청소년활동 안전 센터 설치에는 63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2014년 410억원에서 2015년 431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5년 새일센터는 145개(2014년 140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지원 사업은 2014년 훈련 630개, 인턴 5,290명에서 2015년는 각각 훈련 720개, 인턴 5,385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폭력피해 예방 환경 조성 차원에서는 '찾아가는 교육'과 '체험형 성교육기관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으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이 확대되며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는 지 실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는 2014년 12개 시·도에서 2015년 17개 시·도로 확대 예정이며,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가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 및 의료비 등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뤄진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와 가정폭력 시설 종사자의 치유프로그램을 내년에 신규로 지원 예정이다.

2015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성매매 추방주년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성희롱 실태조사가 신규로 시행되며, 예산(안)에 따르면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2014년 7월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 민간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가 신규 실시될 예정이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0.3억원에서 2015년 4.4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나며, 간병비, 치료사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 12.6억원, 2015년 14억원)

1) 이는 예산(안)으로서 아직 확정된 예산안이 아님을 밝힌다. 2014년 12월 현재 2015년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예산(안)과 방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내년 1월 초 예산안과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 에너지 분권과 자치의 시대 분산형 에너지 체제와 의사결정구조 갖춰야

글 |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에 한번씩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산업부에서는 이제 한국의 전력생산과 소비 방식을 완전히 분산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자체의 에너지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9년까지 필요한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어떤 발전소를 어디에 얼마나 지을지에 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면 송전선 건설계획도 같이 결정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가 증설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밀양과 청도 송전탑 건설로 인해 대규모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발전소도 석탄화력발전소도 짓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만료 핵발전소 폐쇄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는 2014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소 11기 건설과 삼척과 영덕에 7GW의 핵발전소를 신규로 짓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척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김양호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10월 9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85%가 삼척핵발전소 유치 철회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부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부산과 경주에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뜨거운 감자'이다. 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를 계속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전력생산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방사능 오염 피해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10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노후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가 답이다.

한편 2014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페루 리마에서는 2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거의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핵에너지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아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 전기 필요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

좋은 소식은 최근 전력수요가 기존 계획에서 예상한 것

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과 가정상업 분야에서 전력 소비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뜻이다. 심지어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전력계통 운영시스템(EMS)을 부실하게 운용해 연간 8,000억원 이상의 발전비용을 낭비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거래소가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하지 못해 국민들이 수천억의 비용을 지불했고, 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의 계속된 비리에 이어 전력계통 운영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 올해 말까지 수립했어야 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계속 미뤄져 내년 상반기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한국의 전력생산과 소비 방식을 완전히 분산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후쿠시마 사고와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765kV 초고압 송전탑 때문에 고통 받는 밀양주민들을 보면서, 해안가에 대형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초고압 송전탑을 통해 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대량으로 소비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실험은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0일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2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4.3%인 서울의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지역의 발전소와 송전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펼친 결과 서울시는 에너지 200만 톤오이(TOE·석유환산톤)를 줄이고, 전력·가스·석유의 소비량을 1년 전에 비교해 모두 줄였다. 이러한 성과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2만 개소, LED조명 679만개 교체, 햇빛발전소 3,756개소 설치 덕분이었다. 서울시가 에너지 저소비도시로 변신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도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성남, 안산, 수원에서는 미니태양광보급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에너지가격이

올라갈수록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경기도의 전기 소비 급증, 도내에 송전과 변전설비 예고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전력의 40% 가까이 소비하고 있다.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해 전력자립도가 300%가 넘고, 서울과 인천은 동시에 전력소비량이 줄고 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기 소비가 증가하는 곳이 바로 경기도이다. 경기도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총 전력소비량이 2배가 증가할 정도로 전력소비량이 급증했다. 결국 경기도의 전력소비 급증은 경기도 내에 송전과 변전설비 시설을 예고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곳곳에서는 변전소 건설 반대의 깃발이 곳곳에 나부끼고 있다. 신울진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탑이 건설되고, 경기도에 변전소가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밀양의 갈등이 이제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는 경기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기도에서도 현재 26%에 머물고 있는 전력자립도를 50% 가까이 올리는 종합에너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평택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등이 지역차원의 에너지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에버그린21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에너지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탈핵을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의 수요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했던 것처럼 모든 광역지자체들이 다함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에너지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과 지자체가 많아질수록 한국은 더 안전해지고, 더 지속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행정, 시민들의 뜻이 모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1세기는 에너지 분권과 자치의 시대이다. 분산형 에너지 체제와 민주적인 에너지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탈핵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만들어내자. 산업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산형에너지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 핵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고 알리는 2015년 새해

글 | 이윤숙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한국YWCA는 2014~2015년 6대 과제 중 하나로 탈핵운동을 선포하고 '불의날 캠페인' 등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위험한 죽음의 불'을 끄고 '모두에게 정의로운 생명의 불'을 지펴서 핵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전국 52개 회원YWCA가 진행할 2015년 탈핵 운동 계획을 만나보자.

## 고리1호기 폐쇄는 우리의 손으로!

2014년 한 해, 한국YWCA는 '핵없는 세상'이 이땅에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품고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탈핵운동을 숨가쁘게 펼쳐왔다. 3월 11일 화요일, 후쿠시마 핵사고 3주기를 맞아 시작한 캠페인은 어느새 40회를 넘어가고 있다.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가동되고 있는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대고 알려나갔다.

그런데 얼마안 있어 대한민국 국민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지금도 여전히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이 참사를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대한민국 사회가 돈과 물질적 성공만을 위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무시하고 조롱해왔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곧이어 알 수 있었다. 수명연장과 안전불감, 이익관계자들의 검은 거래 등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것들이 바로 핵발전소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후쿠시마 참사 희생자 추모로 시작된 캠페인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로 이어졌다. 그 사이 우리가 23개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가동되는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고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이 소중한 가치라는 것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길을 멈춰 서명하며 격려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고, 핵발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민들도 늘어가고 있다.



대전YWCA가 제35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핵발전소의 위험은 사라질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23개 핵발전소 가운데 30년 설계수명을 넘기고 7년째 아슬아슬한 연장운영중인 고리1호기는 그동안 고장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한다는 것만 봐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이 고리핵발전소의 영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서 커다란 핵사고가 나지 않아도 방사능의 위험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새해에 열리는 YWCA 정기총회에서는 이 낯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를 원하는 시민들과 10만 Y회원의 염원이 담긴 서명을 모아 서빙수 부산 시장에게 전달하고 고리1호기 폐쇄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10년을 추가로 더 연장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하루빨리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 에너지자립워크숍

### -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생각하다

내가 사는 이 곳에서 우리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핵발전소가 사라지면 전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걸까?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상상할 때 먼저 직면해야 하는 질문들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공급위주의 중앙집중형이며 전기요금은 OECD국가 중 가장 싸다. 전기에너지 수요 증가는 정부가 핵발전소 추가건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에너지소비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폭발적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수도권과 대도시들이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쓰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해안가 등 먼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끌어와야 하고, 이를 위해 밀양 765KV 송전탑과 같은 송전시설이 무수히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의 갈등과 희생이 계속된다.

서울의 전력자급도는 약 3%, 경기도는 24.5%에 불과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지역분산형 에너지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탈핵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하며, 이것은 먼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일이다.

2015년, YWCA는 52개 회원Y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지,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한 길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배우도록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조례 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회원Y들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 능력과 실천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방사능조례제정워크숍

### -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다

올해 부천YWCA는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방사능안전 공공급식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채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수산물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8개현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 하고 있고,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들에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방사능안전 공공급식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전개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 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배우며 조례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방법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서명에 청소년들이 동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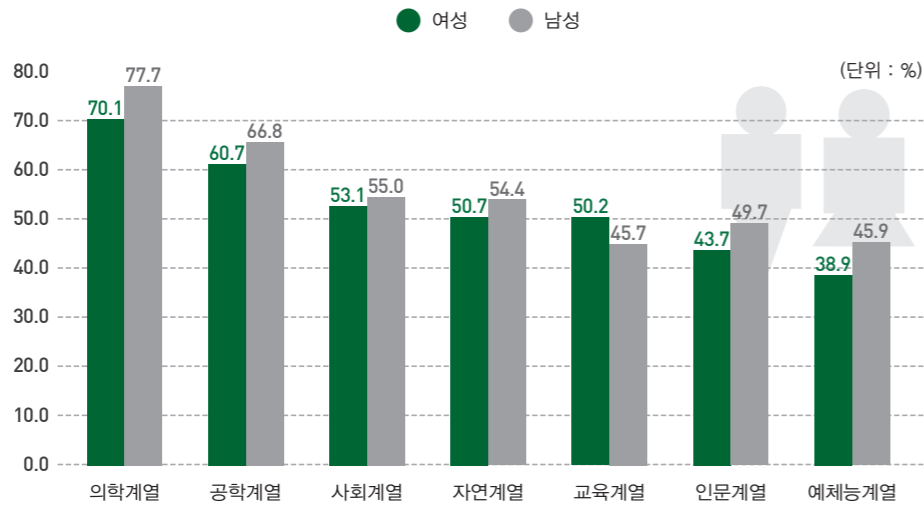
2015년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신규핵발전소인 신고리 3,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의 운영 허가,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저항이 예상되는 해이다.

여전히 핵발전소의 위험이 계속되고 오히려 커질 예정이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탈핵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꾸준히 가야 할 길, 그리고 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새해에도 YWCA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나갈 것이다.

# 교육계열 외 모든 계열별 여성 대졸자 취업률 남성보다 낮아

Column  
컬럼

성별 계열별 대학교 졸업자 취업률



2014년 계열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은 각각 '의약계열' 70.1%, 77.7%, '공학계열' 60.7%, 66.8%, '사회계열' 53.1%, 55.0%, '자연계열' 50.7%, 54.4% 순으로 동일했지만, 이후 여성은 '교육계열' 50.2%, '인문계열' 43.7%, '예체능계열' 38.9% 순인 반면 남성은 '인문계열' 49.7%, '예체능계열' 45.9%, '교육계열' 45.7% 순으로 남녀 계열별 취업률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교육계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률이 4.5%p 높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계열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았는데, 특히 취업률 차이는 '의약계열'에서 7.6%p로 가장 컸고, '사회계열'에서 1.9%p로 가장 작았다.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100

\*\*건강보험DB와 연계한 취업률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GSS)

- **탈핵** \_ 전기 수요 줄이면 탈핵 가능하다 | 김익중
- **여성** \_ 드라마 '밀회'로 읽는 2014 여성 담론 | 김미라
- **인권** \_ 매일 매일이 인권의 날!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 | 김정린
- **청년** \_ 동부지역 대학청년YWCA 회원의 밤 | 윤나라 · 심송희

# 전기 수요 줄이면 탈핵 가능하다

글 | 김익중 (동국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제1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제2편 \_ 핵사고의 원인
- 제3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제4편 \_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 제5편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제6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 제7편 \_ 고준위(高準位) 핵폐기물
- 제8편 \_ 경주 방폐장
- 제9편 \_ 핵 재처리
- 제10편 \_ 핵발전의 대안

올해 YWCA 탈핵 칼럼 연재를 통해 한국은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사양산업인 원자력발전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으며, 원전 개수에 비례해 사고확률을 높여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세계는 이미 원자력을 줄여가면서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음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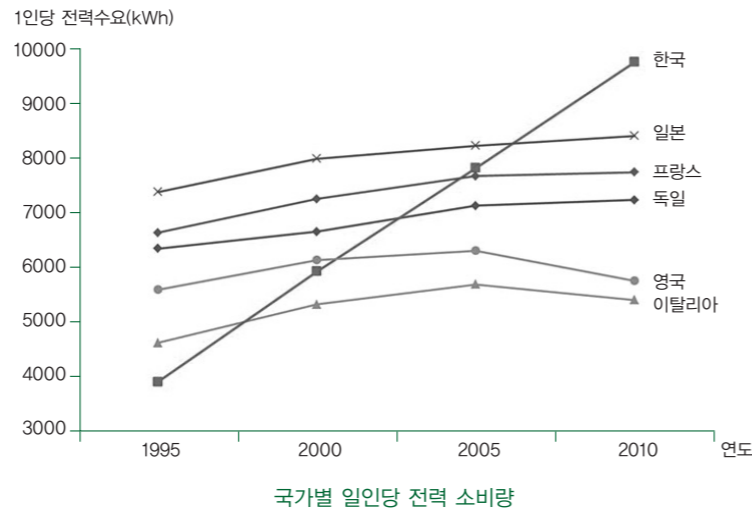
그러나 시리즈의 마지막인 이 글에서는 원자력의 가장 중요한 대안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아니라 '수요관리'라는 설명을 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요관리 없이는 아무리 재생가능 에너지를 많이 개발한다고 해도 탈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의 그래프를 살펴보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자료 중 주요 국가들의 1인당 전력수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소개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은 모두 선진국들이다. 이들의 전기 소비량을 보면 수십년 간 거의 증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시간이 갈수록 전기 사용량이 줄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면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은 현재도 증가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는 모든 에너지 중에서 가장 비싼 형태의 에너지이다. 우라늄, 석유, 석탄, 가스 등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증기터빈을 돌려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1차 연료들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비싸게 되어있다. 그렇게 비싼 전기 에너지를 선진국보다 더 많이 사용 중이고, 아직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추세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전기 수요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 수요는 영원히 증가해야 한다는 종교와 같은 믿음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그래프에 나오는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나 지난 십수년간 경제성장률은 거의 비슷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떻게 선진국들은 전기수요를 늘리지 않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왜 급격한 전기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과 비슷했던 것일까?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일단 경제성장에 전기수요가 필수요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탈핵을 결정한 선진국들에서 오히려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전기수요는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자. 주요 선진국들은 이렇게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을 증설할 필요도, 화력발전을 증설할 필요도 없다. 송전탑을 새로 세울 이유도 없다. 이렇게 전기의 수요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전기가 남아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나라들은 대개 화력발전도 같이 줄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같이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하는 나라들은 화력발전소도 같이 늘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원자력은 화력을 대신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증설하는 동안 화력발전은 원전보다 더 많이 증가해왔다.

아이러니컬하게 들릴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모두 수요관리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려주는 것들이다. 수요관리가 되면 선진국들처럼 원자력과 화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가 감소하지만, 수요관리가 안 되면 재생가능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려면 원자력발전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이 줄어야 화력발전소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이 전기 수요관리에 실패한다면

원전을 줄이는 것도, 화력발전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설사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선다 해도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수요관리 없이는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이 탈핵으로 가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전기 수요관리라고 주장한다. 수요관리로 전기 수요를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묶어놓고, 이후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면 원자력, 화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요관리는 지구온난화와 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난 2년간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수요관리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전기수요를 조금이나마 줄였다는 사실이다. 너무나 고무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시가 한국에서도 수요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성과는 사실 수요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전기요금 올리기'를 하지도 않고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이제 남은 일은 다른 지자체가 서울을 따라하게 만드는 일인 듯 하다.

필자는 현재까지 수백 번의 탈핵강의를 해왔다. 그 강의의 마지막은 이렇게 구성된다.

"한국탈핵은 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길에 동참하면 됩니다. 세계는 이미 원전을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시작하면 됩니다.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로 평균 20%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선진국들은 수요관리를 통하여 전기수요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국탈핵의 방법은 세계적 유행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탈핵의 방법은 컨닝입니다." YWCA

# 드라마 '밀회'로 읽는 2014 여성 담론

글 |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YWCA가 뽑은 좋은TV프로그램 상 심사위원)



“이건 특급 칭찬이야.” 주말 저녁 온가족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 모으는 KBS ‘개그 콘서트’의 ‘신 밀회’라는 코너를 통해 유행어가 된 이말, 알고 보면 원전은 따로 있다. 이 코너는 지난 3월부터 총 16부작으로 JTBC에서 방송됐던 드라마 ‘밀회’를 패러디한 것으로,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한 말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종합편성 채널의 프로그램이 중영된 후 그 내용을 패러디한 것만 봐도 방영 당시 드라마 ‘밀회’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실제로 이 드라마는 흥행과 작품성 모두에서 성공했다. 종편채널 드라마로는 이례적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 5.3%를 기록했으며,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극본상과 연출상을 받는 등 호평을 받았다.

드라마 ‘밀회’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40세의 남편이 있는 커리어 우먼 오혜원(김희애 분)과 피아노에 천재적 재능을 가진 20세 청년 이선재(유아인 분)의 사랑과 정서적 교감이라는 파격적 소재로 극 초반부터 호기심을 자극했다. 얼핏 보면 스무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의 ‘불륜’을 다룬 그저 그런 드라마라는 외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는 ‘불륜 드라마’라는 꼬리표 대신 ‘명품 드라마’라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 가족과 모성의 신화에 갇혀 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동안 ‘불륜’을 소재로 한 TV드라마들은 견고한 가부장

제 이데올로기와 우리 사회의 절대적 가치인 ‘가족’과 ‘모성’ 신화의 범주 안에서 여성을 한낱 성공한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대상을 욕망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고 단죄하는 서사전략을 펼쳐왔다.

그런데 ‘밀회’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 담론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세심한 균열을 감지하고 이러한 재현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아류 드라마에 식상해 ‘새로움’을 찾고 있던 수용자들의 갈증을 해소하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

‘가족매체’이자 ‘안방매체’인 텔레비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도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결혼제도를 바람직한 것, 불륜은 일탈적이고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 왔다. 물론 불륜을 조장하는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남성의 ‘불륜’은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남성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가족’과 ‘모성’의 신화 안에 여성들을 가둠으로써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억압하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공전의 히트를 했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두 편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자. 1970년대 미혼모 문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파장을 불러왔던 김수현 작가의 대표작 ‘청춘의 덫’은 1999년 리메이크되어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자신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던 여성과 아이를 버리고 부잣집 딸과 결혼한 남성이 자신이 배신한 여성에 의해 파멸되는 것을 보며 여성 시청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는 얼핏 보면 가부장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말 같으나, 배신한 남자를 응징하는 주체는 그 여성이라기보다는 그녀를 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이며, 여성은 결국 그 남자의 사랑을 통해 복수를 하고 다시 ‘사랑의 대상’이 됨으로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안에 편입된다.

거의 10년이 지난 2007년에 방송된 ‘조강지처 클럽’ 역시 이러한 드라마의 재현 관습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남편의 외도에 복수하기 위해 아내가 맞바람을 피는 드라마의 설정이 여성 시청자들에게 표피적인 통쾌함을 주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결국은 불륜의 피해자인 여성이 능력 있는 남성의 도움을 받아 복수에 성공하고 다시 한 남성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플롯은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다시 가부장제 신화 안으로 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극적 설정들은 여성은 남성의 도움 없이는 홀로서기를 할 수 없고, 남성의 사랑의 대상으로 머물 때만이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담론들을 조장한다.

물론 극히 일부 드라마에서 이런 재현관습에 도전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2007년 SBS에서 방송된 김수현 작가의 ‘내 남자의 여자’가 대표적이다. 여주인공 이화영은 여고 동창생인 김지수의 남편과 격정적인 사랑을 하고 동거까지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 허위였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서기에 나선다. 불륜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지수 역시 독립적인 삶을 선택함으로써 여느 드라마들과 다른 결말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드라마들은 이상적인 ‘가족판타지’와 ‘모성 신화’ 안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라마 ‘밀회’의 성공은 바로 이런 견고한 드라마의 재현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가능했다. ‘밀회’는 한낱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치부되던 여성의 사랑과 일에 대한

욕망을 서사의 중심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새롭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절대적 가치로 추구해 왔던 이상적인 ‘가족 판타지’와 ‘모성신화’와의 공모를 통해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기보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은폐해온 결혼과 가족제도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또한 멜로드라마의 도식적인 ‘가족의 복원’이라는 도덕적 결말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두 남녀의 사랑이 완성될 것임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역시 새롭다.

## 성 담론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시각 점차 변화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상적인 스토리 텔러로 평가받는 텔레비전의 담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지배적이고 선호하는 가치를 재생산하기 마련이다. 어찌 보면 ‘밀회’의 성공 역시 이러한 드라마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별다른 성애적 표현도 없었던 1996년 방송된 드라마 ‘애인’이 가정이 있는 30대 남녀의 정신적 일탈을 ‘아름다운 불륜’으로 미화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의 도마에까지 오르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시간의 간극만큼 우리 사회의 성 담론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시각들이 변화되어 해원과 선재의 사랑도 일견 용인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미 젊은 세대들은 ‘사랑=결혼’이라는 인식 대신 남녀 간에 사랑은 하되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기성세대 역시 결혼을 매개로 이뤄진 ‘가정’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지고지순한 가치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높은 이혼율과 황혼 이혼의 증가가 하나의 방증이다. 또 하나는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남녀 관계에 있어 권력과 선택의 주도권이 점점 여성들한테 이관되는 추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드라마 ‘밀회’가 보여줬던 발칙한(?) 도전처럼 텔레비전 드라마들도 여성의 삶과 의식을 옥죄어왔던 뿌리 깊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미 있는 작업들을 시도해 주길 기대해 본다.  (이 글은 2014년 『한국극예술연구』에 발표한 필자의 논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 매일 매일이 인권의 날!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

글 | 김정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인권담당관)

## WORLD HUMAN RIGHTS DAY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 (Human Rights Day)'이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불리는 '세계인권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해마다 세계 인권의 날 주제를 선정해 전 세계적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데, 올해는 '#Rights365(인권365일)'을 그 주제로 정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매일 매일이 인권의 날이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각 사람은 모든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은 우리 각 사람에 동등하게 속해 있고 동시에 우리를 같은 이상과 가치를 지닌 세계 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세계인권선언문의 근본정신을 축하하고자 한다"고 인권최고대표 사무실은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영상을 통해 인권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두 메시지 모두 '인권은 인종, 민족, 장애, 국적, 사회적 계층과 계급, 종교, 나이,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이 이를 빼앗을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차별없이"라는 이 두 단어에 그 강조점이 있다.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의 2014년 인권의 날 메시지는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위

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60여 년 전의 약속을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동의 봄 이후에도 일련의 중동 분쟁, 시리아 내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문제,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이슬람국가)와 이라크 사태 등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사회문제의 밑바닥에는 모두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단단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카트'가 보여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유 없는 차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멸시와 천대의 차별, 유색인종에 대해 은근하고도 깊이 박힌 차별의식, 여성에 대한 지경도 록 끈질긴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아동과 노인에 대한 무력화하는 차별, 동성애자에 대한 분별력 잃은 차별, 사회계층에 따른 수치심 없는 차별, 여러 형태의 차별들이 좌우중흥 결합하여 나타나는 다중적 차별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늘 상존해 있다. 매일 만나는 일상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종 차별, 여성 차별, 아동 차별, 장애인 차별, 외국인 이주자 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 인류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차별을 없애고자 해온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참여해왔다. 그리하여 세계인권선언문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성소수자

(LGBT) 인권 결의안'을 비롯한 차별철폐에 관한 유엔의 각종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됐다. 이제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을 국내로 돌려 이 땅에 더 이상 차별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최근 서울 시민인권헌장 제정선포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사안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이 든다. 우선은, 국민의 인권을 앞장서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인권에 대해 매우 무지하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째는, 인권논의를 정치논의로 그 형질을 변환시켜 핵심주제인 인권을 희석 또는 제거해버렸다는 점이다. 셋째는 모든 인권사안이 합의와 공감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오도함으로써 그 동안 애써 노력해 이루어놓은 국내 인권규범과 제도를 폐기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여론에 기대어 스스로 책임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인권이야기 연재를 통해서 누차 강조했듯이, 여러 인권 항목들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 '어떠한 상황'에는 전쟁, 무력분쟁, 국가위기 상황 등이 포함된다. 차별금지, 고문금지, 양심의 자유 등이 그러한 것이다. '차별금지' 즉, 그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도 각 개인에게 하늘이 부여한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민의 합의나 공감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주장은 곁들이 전혀 없다. 만일 국민 중 일부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있다면, 인권교육과 인권 의식 캠페인 등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시키고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인권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모쪼록, 인권의 기반 위에서 이들 논의가 재개되고, 인권의 기준과 원칙에 충실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에필로그 : 연재를 마치며

YWCA 회원들과 인권이야기를 나누는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원고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감정의 색깔이 많이 덧입혀진 것 같아 좀 겸연쩍습니다. 때마침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텍스트에 갇힌 인권을 현장으로 불러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인권을 제대로 알고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나서고, 현장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어간 시민위원 15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과 가능성을 가슴 뿌듯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인권의 주요 현장과 언론에 비쳐진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글을 준비하면서 인권최고대표께서 인권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쓰신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인권은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Human rights are not a reward for good behavior)" 참 성경적 표현이다 싶었습니다. '인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가치와 존엄성을 입히시고, 이를 지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인권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란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웃이 은혜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를 잘 누리며 살고, 이웃과 이방인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인권을 충분히 누리시고 동일한 은혜가 이웃과 이방인에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무한도전! 대학청년Y! 해질 때부터 해뜰 때까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동부지역 5개 회원YWCA(김해Y, 대구Y, 마산Y, 울산Y, 진주Y)의 대학청년들이 마산에 모였다. '해질 때부터 해뜰 때까지!'라는 주제로 무박 2일의 뜨겁게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다. 참가자들의 소감으로 그 날의 현장을 함께 나누다.

## 글 | 윤나라 (울산Y 대학Y)

대학Y의 모임이라고 하면, 울산 지역 내 동아리 활동이 전부였던 내게 마산에서 열리는 동부지역 대학Y 모임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대학Y를 보고 '아, 규모가 저 정도이구나, 우리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들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서 지역별로 모여 있기만 하고 서로 눈치만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다같이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조를 나눠서 게임을 하면서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미니 운동회도 하고, 얼굴에 낙서하면서 놀기도 하고, 연애 얘기, 앞으로의 취업 고민, 진로상담 등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을 남기게 되었던 것 같다.

오기 전에는 '잠도 안자고 어떻게 밤새 놀아?'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뜻이 맞는 친구들이 모이니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밤에 한미미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Y다운 리더에 대한 궁금증과 Y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마음 등 여러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다. 지금은 대학Y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나중에 학교 졸업을 하고 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한미미 위원장님 같은 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도 했다. 한 위원장님 말씀은 울산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극이 되어 가끔 생각이 나곤 한다.

밤을 새고 난 뒤에는 다들 처음 본 얼굴들이 많았는데도,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보자는 다짐을 하고 연락처도 주고 받았다. 다음에 또 이런 모임이 있다면 같이 활동하는 대학Y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할 것이고, 나 또한 반드시 참석할 것이다. 동부지역만 모였는데도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전국에서 대학Y가 모인다면 얼마나 큰 규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 전국모임에 얼른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Y 활동을 하면서 대학Y가 모일 수 있는 것은 전국모임 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소소하게 지역별로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 대학Y 활동에 큰 활력소가 될 것 같다.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니 '회원의 밤에 조금 더 열정적으로 놀 곁'하는 후회도 들지만, 무박 2일의 추억을 생각하며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대학Y 회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하며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야겠다.




## 글 | 심승희 (울산Y 대학Y)

'대학청년Y 활동을 4년째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르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좋은 추억들이지만 그중에서도 매년 모이는 전국협의회와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모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웠다.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신없이 힘들게 보냈지만, 돌아보고 나면 가장 추억이 되는 날들이었다.

전국 모임을 다녀온 후에는 서로의 말투가 섞여서 각 지역의 사투리가 아닌 이상한 말투로 변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다른 지역과의 모임에 가 보면 열정과 책임감, 강한 자부심이 넘치는 Y회원들로 가득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은지 생각을 하곤 했었고, 말을 할 때 빛이 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회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올 수 있었다.

울산YWCA에서는 Y-틴에서 대학Y로 활동을 이어가는 회원이 적어 Y에 대해 마치 내가 가장 많이 아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 여러 지역 회원들과의 모임에서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깨닫고 Y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산에서 가진 이번 동부지역 회원의 밤 때도 그러했다. 아쉽게도 각 지역에서 많은 회원이 온 것이 아닌 대부분이 마산 지역이었지만 진주, 대구, 김해, 울산 등에서 모인 열정이 넘치는 회원들로 인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말도 못하고 주눅이 서 있고 앉아있었다. 그러다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할 때 섞이다 보니 많이 얘기하며 친해질 수 있었다. 서로의 얼굴에 낙서도 하며 놀았는데 한 친구가 남학생인데도 여장을 하니 나보다 더 예쁜 것 같아서 놀랐다. 그렇게 재미있게 무박 2일을 함께 보내며 연락처를 교환한 친구들은 지금도 종종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고 세상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번 모임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한미미 위원장님이셨다. 정말 그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느껴졌고 눈빛부터 남다른 분이셨고, 본받을 점이 많으신 분이였다. 한반도 통일과 청년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에서 여성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Y-틴으로 활동할 때보다 대학Y가 이런 모임의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Y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모임을 자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동부지역 YWCA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우월감과 영접

글 | 이천진 (한양대학교회 담임목사, 연합회 전문자문위원)

거룩한 독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이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의 영성훈련방법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다. 12세기의 수도자인 귀고(Guigo)가 정리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는 읽기(Lectio), 묵상하기(Meditatio), 기도하기(Oratio), 관상하기(Contemplatio)이다.

읽기는 성서를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묵상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단어를 붙잡습니다. 기도하기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참회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관상하기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는 단계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스런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 읽기(Lectio)

### 마태복음 25장 31절-46절

- 31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 32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 33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 34 그 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 35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 36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 37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

- 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 38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 39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 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 41 그 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 42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 43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 44 그 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45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 46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 묵상 (Meditatio)

- 1. 인자는 어디에 앉습니까?(31절)
- 2. 인자는 모든 민족을 목자가 무엇과 무엇을 가르듯이 가르칩니까?(32절)
- 3.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차지하라고 합니까?(34절)
- 4.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무엇을 하였다고 하였습니까?(35절)
- 5.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무엇을 하였다고 하였습니까?(36절)
- 6. 누구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까?(40절)
- 7.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까?(41절)
- 8.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무엇을 주지 않았느냐고 하였습니까?(42절)
- 9. 너희는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까?(43절)
- 10.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까?(43절)
- 11.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45절)
- 12.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46절)

## 기도 (Oratio) / 묵상 나눔

### 행함이 있는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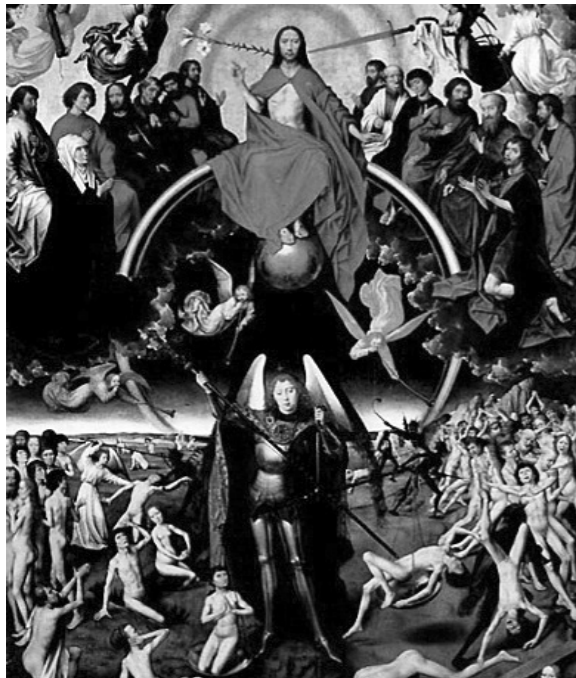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별합니다. (32절) 양은 예수의 오른쪽에, 염소는 예수의 왼쪽에 세우십니다. (33절)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심판 때에는 제3의 지대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35절) 예수를 영접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믿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36절)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강영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 당시 상황에서는 루터의 sola fidei 신학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루터 신학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루터의 sola fidei 신학을 절대화하고 행함을 강조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루터를 이상화하는 일이며, 그렇게 되는 것을 루터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의 sola fidei 신학은 ‘fidei cum opera(행함을 동반한 믿음)’의 신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2011.10.28., 국민일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잡수실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렸느냐고 묻습니다. (37절)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38절)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라고 묻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의인들에게 ‘형제자매 가운데,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자신과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높여주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 핵심 질문: 핵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욕망과 우월감에서 나온 것입니까?

### 영접하는 사람

예수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절) 예수께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3절)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



최후의 심판(Last Judgment), 한스 멤링(Hans Memling)

았기 때문입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죄입니다. (Sin of not-doing)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아 드리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44절) 예수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5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46절)

**핵심 질문** 내가 영접해야 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절대적인 악**


박경미(이화여대 교수)는 ‘죄는 어디에서 오는가?’(녹색평론, 2011년 9·10월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언해서 말하자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오늘날 과학이 ‘살인’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류 최고의 지적 능력이 집약적으

로 발휘되어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세계를 죽이는 일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살인행위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자들과 정치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학에서의 핵분열현상은 생물학에서의 생명복제 현상과 쌍둥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것은 둘 다 생명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안정성을 어지럽히며, 따라서 절대적인 악이다.”

성서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핵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생명을 죽이는 폭력입니다.

**우월감과 폭력**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은 우생학(eugenics)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찰스 다윈(Darwin)의 사촌입니다.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의 영향을 받아서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우생학으로 인종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우생학을 근거로 ‘고등 인종인 아리안 민족의 피가 하등인의 피와 섞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유전 위생법’을 공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모든 독일 시민들에 대해 강제 단종을 명령했습니다. ‘우월한 독일 인종’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전 위생법’을 근거로 유대인, 집시, 러시아인 등 수천 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는 민족우월론을 펴면서 유대인 박해와 주변국에 대한 정복전쟁을 펼쳐나갔습니다. 우월감이 생명을 함부로 하게 합니다. 핵은 우월감에서 나온 폭력입니다. 

**관상 (Contemplatio) / 실천 (Praxis)**

- 1) 나의 우월감은 무엇입니까?
- 2) 내가 돌보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3) 탈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 YWCA가 바라는 돌봄사회는 무엇인가

글 | 정서연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간사)

제5차 YWCA 돌봄정의포럼이 11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WCA가 바라는 돌봄사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제5차 YWCA 돌봄정의포럼은 마지막 차시의 포럼으로서 2014년도 돌봄정의포럼을 정리하고 회원YWCA 돌봄담당 활동가들과의 워크숍 시간을 가졌다.

‘여성의 삶과 돌봄’을 주제로 정신희(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선생의 주제 발제가 있었다. 발제자는 ‘여성=돌보는 자, 남성=돈 버는 자’라는 성별분업을 통해 돌봄을 여성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현실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이러한 성별과 과정의 이면에 작동하는 남성중심적인 권력 관계를 지적하였다. 사회가 여성을 ‘돌보는 자’로 규정하고 암묵적으로 이것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무슨 이유에서건 잘 돌보지 못할 때 죄책감을 갖는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를 ‘정의롭지 못한 전제’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 먼저 이 정의롭지 못한 전제를 벗어날 것을 말한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돌봄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족 내부에서 사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님을 밝히고, ‘하나님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서로 돌볼 것을 예수가 명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YWCA 돌봄운동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이은영(연합회 돌봄과살림 위원회) 위원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YWCA 돌봄운동에서 주창하고 있는 ‘사적영역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는’ 돌봄노동의 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봄노동 사회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깨고 성평등한

이인소득자모델로의 이행을 주도하는 것인데,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고용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복지 영역에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YWCA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돌봄노동의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돌봄사회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YWCA가 바라는 돌봄사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별 워크숍이 있었다. 일 년간 진행된 돌봄정의포럼을 통하여 내년도 돌봄운동의 적용점을 찾고자 함이었는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YWCA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의 돌봄담당활동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돌봄담당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좋은 돌봄 일자리’는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중, 일에 대한 자긍심을 수 있는 것, 돌봄 영역 간 직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존감 향상 및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YWCA 돌봄담당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돌봄회원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Y운동과 연계하는 것, Y회원으로 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 돌봄회원을 운동 주제로 세우는 것’이라 말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돌봄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였다.

2014년도 YWCA 돌봄정의포럼을 통하여 YWCA가 펼치고 있는 돌봄운동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서로 상생하며 생명과 사회를 살리는 정의운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배우고 꿈꾸는 YWCA 돌봄 회원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2014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천Y와 성남Y, 서울Y 돌보미와 실무자들이 일본 오사카로 돌봄협동조합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이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동안 전국 17개 회원Y 소속 70명이 참석해 YWCA 정체성에 따른 돌봄회원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형 돌봄 조직에 관한 논의를 위해 회원YWCA 돌봄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돌봄 회원들의 소감문을 통해 현장을 공유한다.

## 2014 돌봄협동조합 해외 연수 소감문

글 | 김영미 (성남YWCA 아기돌보미 회장)

돌봄이란 단어는 우리 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돌봄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 일본의 돌봄서비스와 협동조합 운영방법을 직접 보기 위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13명의 YWCA식구들과 함께 일본 연수를 떠났다.

일본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고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일본 사람들의 장점을 배워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사카Y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난 회원들이기에 서로 반가워하며 마음껏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나눴다.

협동조합은 일하는 사람과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모두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책임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사람과 지역에 기여하는 일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복지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워크숍 '모두의 집'은 노동자 협동조합으로서, 노인지원, 장애인지원, 육아지원, 도우사업, 사회연대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타르(반딧

불) 복원사업을 하며 하천을 깨끗이 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환경운동도 겸하고 있다고 한다.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개호보험(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비용의 일만 부담하고 원하는 서비스 부분에 시설물을 이용하며 돌봄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

'이타미 시립시민마을 만들기 프라자'는 건물에 입주했을 때 시끄러워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에게만 입점을 허락한다고 했다. 장점은 서로 친해지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이고, 260개가 넘는 단체가 가입되어 있어 조합원들과 단체들이 서로 이익을 창출하며 협동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모두가 동등한 1표의 권한을 갖게 되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타미 노동자협동조합'은 30년의 긴 역사와 함께 비교적 안정적인 조합으로서 여러 부문의 노인돌봄을 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요양하시는 분,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시는 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조합을 이용하고 목욕시설도 원하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관심을 집중시켰던 부분은 휠체어를 탄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고 있다는 점이였다. 시설장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곳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환하게 웃고 돌아가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봄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YWCA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협동조합이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에 만들어질 소망하게 되었다. 돌봄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보고 배우

니, 비록 그들의 출발과 우리의 조직전환이 다르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가능성에 희망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흔들릴 수 없는 YWCA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필요를 잘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돌봄에 참여하는 이와 지역사회 모두가 발전이상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이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과 YWCA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돌봄 임원 워크숍 소감문

글 | 엄계현 (청주YWCA 산모돌보미 총무)

가을 길이 노랗게 물들 무렵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회원YWCA 돌봄 임원 워크숍에 다녀왔다. 청주YWCA 주관으로 임원 워크숍을 다녀온 지 꼭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연합회였다. 명동 거리의 화려한 건물 사이로 세월을 품은 듯한 다시 보니 더 반갑고 정겨움마저 들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돌봄과 살림 임원들과 한 자리에 모인 1박 2일의 시간을 긴장과 설렘으로 시작하였다.

첫 시간은 연합회 차장에 회장님으로부터 듣는 '돌봄서비스 직업훈련의 역사'였다.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YWCA가 참 보금자리 같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돌봄 운동에 대한 YWCA의 걸음에 신뢰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시간은 '한국YWCA 돌봄노동 운동과 정책'에 대한 시간이었다.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주셨는데 YWCA가 나와 같은 돌봄회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준다는 생각에 웬지 뿌듯하고 든든함이 느껴졌다. 이어서 다른 지역의 회원Y 임원들과의 짧은 조별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다. 지역이 어디든, 직종이 무엇이든 일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지역 임원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는 일을 다른 지역에서는 업무 외 일이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는 개인 간의 차이도 있지만 지역 간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때때로 업무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어 인정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많았었다.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표준화 되고 그것이 약속처럼 잘 지켜진다면, 모호한 상황은 줄어들고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강의는 '당신은 리더입니까?'라는 물음을 주는 강의였다. 멧쟁이 강사님은 단번에 나의 시선을 끌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내가 리더일까, 보스일까' 하는 질문이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YWCA 안에서 임원으로서 함께 행동하는 자이기보다는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다.

청주YWCA에서 산모돌보미로 활동한지 5년차이다. 처음 시작하면서 스스로 10년이라는 약속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30여 년이 넘게 일하신 서울Y의 한 회원님의 시간 앞에 머리가 숙여지기도 한다. 10여 년이 흐른 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YWCA 안에서 그동안 같고 닮은 것들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 연대와 상생을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로

글 | 이해련 (연합회 지역운동국 간사)



한국YWCA연합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한 '2014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연구보고회'가 12월 2일(화)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는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수상 부문으로는 전국의 14개 사회적기업활성화 광역 시도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각 지역의 우수 사회적기업에게 수여하는 ‘우수 사회적기업상’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공헌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이 있다.

2014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에서는 총 14개 사회적기업을 각 지역에서 추천받아 ‘우수 사회적기업상’을 시상했다. 특별히 경남 지역에서는 통영YWCA의 사회적기업인 민들레누비가, 서울·인천지역에서는 한국YWCA연합회의 ‘친친와이파이’사업에 함께 작업했던 스피어 ‘우수 사회적기업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으로는 지역부문과 전국부문 각 2개 기업씩, 총 4개 기업이 수상하였다.

### \* 우수 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광주:(주)한글피움, 대구:꾸꾸는씨어터(주), 대전:(주)공감만세, 부산:사회복지법인 로템복지재단 로템직업재활센터, 울산:희망을 키우는 일터, 강원:(사)문화프로덕션 도모, 경기:행복도시락(주)부천점, 경북:해피쿠키, 경남:(주)민들레누비, 전북:(유)맑은누리, 전남:(주)미향주거복지센터, 충북:(주)싸리비, 충남:(주)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서울·인천:(주)스플

### \* 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 수상기업

전국부문: (주)우리은행, 행복나래(주)

지역부문: (주)피플크린, 현대백화점 충청점

울산 지역 수상자인 ‘희망을 키우는 일터’의 이승일 대표는 “상을 받는 것이 축스럽고 죄송하다. 저희보다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회적 기업자들이 지역에서 많은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울산의 지역 활성화 네트워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이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수상자들이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상식 이후, ‘사회적기업활성화 네트워크 분석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연구보고회가 이어졌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에서는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공동연구자인 이정현 교수(명지대학교 경영학과)와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연구발표 후, 좌장 박준식 교수(한림대학교 사회학과)의 진행 아래 신순예 사무국장(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이필구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김태현 전 사무국장(사회적기업활성화 전남네트워크), 차길환 사무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이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의 향후 활동과 방향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민관협의체로 출범하였다. 본 네트워크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및 유관단체들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 및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종교계, NGO, 봉사단체, 재계 등 9개 분야 28명의 공동대표단이 속한 중앙조직과 14개 광역 시도별 지역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부터 한국YWCA연합회가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을 담당해왔다.



### 우수 사회적기업상 수상자 인터뷰: 강분애 (민들레누비 대표, 통영YWCA 사무총장)

“통영YWCA에서는 2008년에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누비 교육을 처음 시작했어요. 누비 교육 이전에 진행했던 한글교실을 통해서 이주여성들의 직업 욕구를 조사했는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또한 자국에서는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어요. 알아보는 중에 이주여성들의 특별한 손재주와 통영의 누비를 접목시킬 수 있었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시킨 것이 민들레누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누비 교육을 통해 각 업체에 취업한 이주여성들이 직장 안에서 적응을 잘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주여성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의 일감을 전달해주었고 이전보다 점차 잘 적응하며 지냈는데, 이후의 문제는 급여가 적다는 것이었죠.

마침 당시 사회적기업 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하여 사회적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된 지 2년차이며 현재 이주여성 10명과 한국 직원 5명, 이렇게 총 15명이 민들레누비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민들레누비에게는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째, ‘누비를 잘 만들자’ 였는데, 이걸 이미 달성했습니다. 통영에서 누비를 가장 잘 만들기로 입소문이 났거든요.

작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무국을 맡아왔고 올해 초, 첫 번째 민간단체 사무국인 한국YWCA연합회로 사무국이 이관된 이래, 처음 제정하여 진행된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였으며, 또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연구보고회 역시 창립 이래 지난 3년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활동 보고로써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민간의 인적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과 사회적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간 지원조직, 지역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둘째는 월 매출 3천만원을 하는 것인데 올해 딱 한 번 이뤘으니 이것도 달성했다고 봐야겠죠? 월 매출 5천만원 정도면 자립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내년에는 월 매출 4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통영에는 워낙 누비가 유명하기 때문에 통영에서만 팔기보다는 통영 외 지역으로 판매 구조를 바꾸고 싶은데 아직은 통영이 주 거래처인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꼭 해외박람회 가는 것이 목표이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역시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에는 어려움도 있었죠. 초반에는 이직율도 높았는데 그 이유로는 이주여성들이 민들레누비 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급여도 점차 오르고 있어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답니다. 이 때문인지 민들레누비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고,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들레누비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돕고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 모금 워크숍에 참여한 이후 대전YWCA의 변화

글 | 김지찬(대전YWCA 간사)

2014년 모금워크숍을 진행한 정회원YWCA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금워크숍 이후에 Y 내부의 모금운동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고, Y만의, Y다운 모금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9월에는 자체적으로 회원Y의 후원행사와 바자회 노하우 공유 워크숍이 진행됐다. 8개 회원Y의 애정과 정성, 그리고 후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간 이 자리에서는 회원Y들의 노하우이기 이전에 지역사회 속에서의 Y 운동에 대한 간증이요, 함께 소통하는 속에서 이루어내는 변화들의 이야기가 살아 움직였다. 참여한 23개 회원Y들에게 있어 모금워크숍 후속으로 진행된 노하우 공유워크숍은 Y 운동에 대한 자부심과 아울러 각 지역에서 성찰의 기회뿐만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되었다. 특히, 모금워크숍 이후에 6개 정회원Y들이 워크숍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배운 만큼 알게 되고, 알았으면 실천해야 한다

올해로 13번째로 진행되는 대전YWCA 후원의 밤은 4월에 진행되는 회원증모운동 못지않은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대전Y의 자랑이며, 이사, 위원, 실무자가 한마음이 되는 축제의 자리이다. 물론 약간의 부담스러움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지만 올해는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외 실무자를 포함해 총 6명이 연합회에서 주관한 모금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진행했던 모금행사에 대해서 다시금 평가하게 되었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3회에 걸친 모금워크숍 때마다 우리는 '이번 후원의 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더욱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운 만큼 알게 되고, 알았으면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저런 고민 끝에 '후원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규후원금 업체를 발굴하는 동시에 후원금 증액이라는 계획을 야심차게 세웠다. 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약간의 부담을 안고 기존 후원자들에게 증액을 요청했지만 경기가 어렵다며 거절하기도 하셔서 실망과 함께 힘이 빠지는 기분도 여러 차례 느껴야 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새로운 신규 모금처를 발굴했을 때는 감사함과 뿌듯함, 또 함께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 벅차기도 했다.

작은 기적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때는 증액이 어렵다고 거절했던 후원자가 미안했는지 예년보다 증액해서 후원해 주시고 후원금 내역이 대전YWCA의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나왔을 때였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가 더욱 크게 넘쳤다.

2014년도 대전YWCA 후원의 밤은 YWCA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림으로 Y에서 활동할 수 있는 회원 확보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YWCA 활동 기금 마련,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의 확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다.

한 자원지도자 분이 '지역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 생각해 보니 '지역 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Y', '청소년 리더십을 귀하게 생각하는 Y'라는 이미지와 청소년의 공연이 잘 맞는다는 생각에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오프닝 공연으로 넣었다. 청소년들에게는 무대에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Y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벽을 넘어야 별이 된다'라는 주제로 회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주철환 아주대학교 교수(전 MBC PD)의 특강은 '숨 쉬는 순간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매 순간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참여한 회원들로 하여금 평소



(좌)포토월 앞에서 쿠션을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  
(우)청소년을 위한 도네이션 박스 앞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과 감사함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후원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후원의 밤

기존 후원의 밤 행사는 소정의 기념품과 다과를 제공하고, 명강사의 특강 또는 신앙을 가진 연예인들의 토크쇼, 행사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후원에 대한 감사 편지와 선물을 보내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번 후원의 밤에는 행사 당일 참여한 모든 후원자들이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사전 실무회의에서 고민했다.

우선, 행사 시작 시간까지 후원자들이 답소를 나누는 시간을 이용해 포토월 앞에서 사진을 찍어드렸다. 후원의 밤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Y의 희망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취지였다. 포토월 디자인을 Y답게 만들고 또 사진을 통해서 오늘을 추억하고 감동을 드리자는 생각은 오신 모든 분들께 감동이 되었다. 찍은 사진을 이메일,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감사의 메시지도 담아 전해드렸다. 뿐만 아니라 사진 찍는 것을 어색해하는 회원들을 위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당신'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쿠션을 제작하여 소품으로 사용하였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쿠션에 새겨진 글귀가 정말 마음에 든다며 여러 번 사진을 찍어 가기도 하셨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도네이션 박스를 설치해 운영하였다. 도네이션 박스는 소외 청소년들이 대전Y에 방문하여 상담소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동아리 등에 참여해 금

정적으로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내용으로 스토리를 제작하여, 도네이션 박스가 움직임과 동시에 배경음악까지 나오게 했다. 도네이션 박스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에게 제작 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하며 YWCA 활동을 나눴는데, 이 역시 향후 모금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후원의 밤 행사 마지막에는 포토월에서 촬영한 사진을 '좋은 사람' 찬양과 노랫말과 함께 영상으로 보여드렸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더 자연스러운 행사 당일 사진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렸다. 많은 후원자들이 기뻐하며,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후기를 들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들(대전시장, 여성시의장, 교육감, 지역 정계인사)이 참여하고 인사를 나눔으로써 YWCA가 지역 사회 안에서 여성과 아동,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10월 23일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후원의 밤은 후원행사 목표금액을 120% 달성한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올해 모금된 후원금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가족폭력 피해여성과 피해 가족들의 안식처 지원,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방과후 지원,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 탈핵 운동, 성인지 의식 확산, 비문해 여성 한글교육, 돌봄 회원들의 역량강화,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 등 YWCA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및 한국YWCA 6대 중점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 살리며,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하자

YWCA복지사업단 25개 어린이집 중견교사 연수가 2014년 11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2박3일 동안 제주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는 3년차 이상인 중견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생태, 환경, 다문화'라는 주제로 다문화강의(다문화 보육의 이해와 교육프로그램-제주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은정 교수,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실태-제주 대안공동체 윤명희 연구원)와, 어린이집과 탈핵운동 실천방안(중점운동국 이윤숙 부장), 제주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방문과 중견교사 네트워크와 원장연구모임, 생태문화 탐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 글 | 윤량 (광주YWCA 어린이집 교사)

전국 YWCA어린이집 중견교사 연수의 모든 일정이 유익한 시간이었다. 연수 전 미리 일정표를 받고서 저녁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부담이 되었는데, 제주 공항에 도착하여 연합회 국장님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온 여러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만나 서로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해주니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중견교사 연수는 생태, 환경, 다문화 이해와 현장 체험을 통한 YWCA어린이집 교사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이 주가 되어 이루어졌다. 제주Y를 방문하여 여는 예배로 연수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총장님이 인상적이었고 Y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중견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중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에 들어왔음을 인식하게 되었



윤량교사(중앙)

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주 탐방을 통해 제주도 곳곳에 볼 수 있는 오름을 보고, 직접 굴을 따는 체험을 통해 제주의 굴을 마음껏 먹어 볼 수 있었다.

둘째 날 서귀포Y를 방문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영상으로 보았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소통하는 YWCA의 모습을 보며 '함께 나누며 함께 한다'는 말처럼 사랑이 많은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으며,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많은 YWCA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했다.

이중섭 생가와 미술관을 관람하는 동안 '조별 이름과 생일 알기'라는 미션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알아갔다. 올레길 7코스를 산책하며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졌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중견 교사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조원들과 즐거운 소통을 나누었고, 조마다 특색있는 사진들을 담아왔다. 시상 후 공유한 사진들을 보니 역시 YWCA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발한 사진들을 찍어왔다. 우승 상품으로 오설록에서 녹차가 들어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다. 연합회에서 이처럼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연수를 진행해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거문 오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입장부터 철저히 하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해설사 분이 제주사람으로 70대의 나이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설명을 들으며 오름을 오르니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게 되며 자연 그대로의 거름인 오름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셋째 날 탈핵운동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핵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해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지금부터라도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절

## 글 | 오선희 (성남YWCA 어린이집 주임교사)

중견교사 연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내 행사와 겹쳐 아이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제주도에 도착해 전국의 Y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님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2박 3일의 일정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첫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먹하게 차에 올랐지만, YWCA라는 소속감 하나만으로 서로 의지하며 금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제주도만의 독특함과 새로운 모습에 아름다움을 느꼈고, 일정이 빠듯하기는 하였지만 중견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잠시나마 어린이집의 일을 잊고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을 즐기며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중견 교사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이 위치에서 느끼는 고충과 더불어 보람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보냈다. 지역의 Y어린이집 프로그램과 일반 어린이집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Y의 생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영·유아들이 하나님 말씀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음에 감사했다.

탈핵 운동과 다문화 교육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영·유아들에게 일상 속에서 이를 녹아들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서 고민을 하였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하지만 Y어린이집으로 위탁받은 곳은 종교색을 띠면 안된다는 사정으로 인해 Y의 목적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어린이집도 있기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다.

약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연수 일정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숙소, 도움을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람들과도 정이 들었는지 헤어지려고 하니 아쉬움이 컸다. 연수를 통해 YWCA어린이집 교사로서 사명감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똑같은 일상을 살던 나에게 습과 배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얻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선희주임교사(왼쪽)

비행기 시간으로 인해 마지막 날 열린 Y장터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스쳐가며 보았던 Y 장터가 생각 외로 매우 큰 행사여서 Y어린이집 교사로서 웬지 모를 자부심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동안의 힘든 일을 보상이라도 해 주는 듯 2박 3일의 시간동안 교사들을 위해 애써 주신 국장님과 간사님, 원장님들의 배려로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인지 그 어떤 연수보다도 평소 Y 정신이 포함된 활동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소감문을 적어보며 마지막 날의 마음처럼 감사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더불어 일상으로 돌아와 다른 교사들에게 중견 교사로서 이번 연수에서의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작은 것부터 Y의 정신을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며 좀 더 Y의 목적에 가까운 활동들이 되도록 연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Y 교사가 되고 싶다. 

# 확자지꼴 나눔장터와 고사리들의 사랑의 장터 익산YWCA 북한어린이돕기

글 | 최현자(익산YWCA 사무총장)

“YWCA가 주도적으로 나눔장터를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9월 어느 날, 익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익산시의 가장 큰 축제인 국화축제가 늘 소비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던 아쉬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YWCA와 만들어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주셨다. YWCA의 나눔운동을 익산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사들과 회원들이 옷장을 정리해 각종 물품들을 십시일반으로 챙겨와 주셨다. 지역의 교회와 지인들도 아파트나 거리에 버려진 물건들을 보고 Y로 전화를 주기도 하셨다.

“몇 점 모았나요?” 2~3일에 한 번씩 걸려오는 시 관계자의 전화에 물건이 적으면 어찌나 하는 걱정도 되고 열흘이라는 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도 되었다.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고, 물건 전시도 끝나기 전에 축제에 구경나온 시민들이 옷가지들을 고르고 물건들이 팔려 나갔다. 소파와 런닝머신 등을 트럭으로 실어다 주신 회장님을 비롯해 아이들이 입던 옷을 가져다주던 젊은 엄마들, 아이들에게 100원씩 받고 조랑말을 태워주고 모은 거금(?)을 모금함에 넣어주시던 투박하지만 따스했던 심부름센터의 사장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열흘 동안 익산YWCA와 함께 했다.


“1000원입니다~” 부스를 찾아온 장애인들, 이주여성들, 일을 마치고 급하게 들린 일용직 노동자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겨울에 일할 때 춥지 않겠다며 두터운 옷가지 한아름을 몇 천 원에 사고 만족해하던 아저씨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

익산Y 부스 앞에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운동 모금함을 보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과 다른 부스의 판매자들도 모

금에 함께 해주셨다. 회장님과 이사님들, 합창단 등 회원 봉사자들의 함께 하는 손길에 시관계자들은 역시 Y라며 칭찬을 마지않았다. 국화꽃 향기 가득한 공원에서 열흘 동안 시민 장터를 성공적으로 연 공이 인정되어 익산Y 회장님이 감사패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나눔장터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어진 작은 기적들. 군산중앙교회 어린이학교에서 벼룩시장 장터를 열어 모금했던 기금을 들고 익산Y에 찾아왔다. 어린이들이 자기가 가진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외플을 굽고 솜사탕을 만들어 팔아 모은 소중한 돈을 북한어린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보내온 것이다.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감동 속에 생명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음에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모금을 통해 북한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YWCA가 될 수 있어 감사하고 참여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전한다. 



## 북한어린이돕기 후원자 감사 나눔 연극

11월 27일 한국YWCA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은 후원 교회, 기관, 개인 후원자 등 200여명을 초청해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나눔에 감사하고, 잠재 후원자들에게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 운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따뜻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본 행사는 연극 '월남스키부대'의 제작사인 SHOW&NEW(대표: 김우택)의 전석 후원으로 진행됐다.

7시가 조금 지난 시간부터 10개의 후원교회와 2개의 기독교 기관, 정기후원을 하시는 50여 명의 개인 후원자들, 서울 YWCA를 비롯한 6개 회원Y의 회장, 이사, 실무자, 돌봄회원들과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씨티은행, 제일은행, 농협중앙회, 마포구청, 대광초등학교 등에서 오신 200여 명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후원자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찬 소극장에서 차경애 회장의 감사인사와 한미미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장의 초대 이야기로 훈훈함이 더해졌다. 한 노인과의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코믹 연극에서 공연 내내 웃음이 이어졌고 가족 간의 사랑과 관계의 회복을 메시지로 나누는 시간에서는 잔잔한



감동이 흘렀다.

특히, 주인공 노인 역의 배우 이한위 씨는 연극이 끝나고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의 취지와 함께 지속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멘트를 함께 나누었고, 평화홍보대사인 임형주 씨의 즉석 노래 공연도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후원 약정시간에는 새로이 후원을 약정했고, 마포성광교회에서는 돌잔치 감사헌금을 분유를 먹지 못하는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전달해 주셨다.

올해 1월 북한의 남포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전달한 바 있는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은 남북간의 우호적인 관계 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교류활동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11월 (2014년 11월 1일 - 11월 31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14. 11. 1. ~ 11.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순복, 권민혜, 권진, 김가혜, 김건세, 김기동,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남솔,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인수, 박보람, 박용옥, 박은실, 박인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세원,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안정희, 안혜진, 엄효정,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지은, 이향재, 이행자,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미, 임진영, 임향자,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정미, 전하예,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은선, 조은희,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선나, 최우림,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함희경, 홍기자, 홍현정, 황정아, 황홍백 (총 98명)	1,471,000
개인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년기부등)	김미, 방원철(성광교회), 이진용위원(저금통), 고의순, 계광림 권사, 개인동전기부	716,94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예수비전교회 주일학교 바자, 약전평강교회	926,1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신우회	50,000
회원YWCA	부천Y, 동해Y, 서울Y, 순천Y, 대구Y, 대전Y	28,850,154
부속시설	전주어린이집, 서울어린이집, 세종어린이집	686,160
<b>합 계</b>		<b>32,700,354</b>

# 2014 한국YWCA연합회 10대 뉴스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연합회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심습니다. 2014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회원Y 월간 담당자, 연합회 홍보출판위원, 연합회 실무자들이 직접 선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100주년을 향해 가는 한국YWCA는 이 시대의 여성들이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정의를 나누며,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 1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 시작

2014 한국YWCA연합회 10대 뉴스 1위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시작'이 차지했다.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인 2014년 3월 11일,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탈핵 캠페인을 시작했다. '불의날'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꺼지지 않는 재앙의 불인 핵의 위험을 상기시키며, 자연에너지인 정의롭고 평화로운 불을 밝히자는 의미이다. 명동 연합회 회관 앞에서 매주 화요일 12시에 불의날 캠페인이 열리며, 12월 9일 현재 제38차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전국 52개 회원YWCA에서는 매주, 격주, 매월 지역 사회에서 캠페인에 동참하며 현재 총 서명수는 무려 15,000여 명에 달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탈핵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3월호 참고)

## 2 고리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한 전국집중행동

11월 15일 부산에서 진행된 '고리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한 전국집중행동'은 Y 회원들에게 크게 기억에 남는 전국 규모의 행사였다. 이날 전국 52개 YWCA 회원 250여 명이 동참했으며 부산시민회관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범일동에서 송상현 광장까지 한 시간여 동안 3.7km를 도보 행진하며 '고리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집중행동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메인 화면에 오르며 시민들이 '탈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1월호 참고)



## 3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전달 출항식

올해 1월 YWCA 북한어린이돕기 사업단은 북한의 남포 지역 어린이들에게 분유 5톤을 전달했다. 한국YWCA는 전국 52개 회원YWCA, 일반 시민, 교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북한어린이 한 명을 식탁에 초대하는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 캠페인과 더불어,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전국 26개 YWCA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분유보내기 모금운동이 진행됐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유엔에서 분류한 기아 분류 단계의 5단계 중 4단계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YWCA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도울 예정이다. (1+2월호 참고)

## 4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모금

2014년 가장 가슴 아파했던 이들의 곁에서 한국YWCA가 함께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전국 52개 회원YWCA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과 노란 리본으로 마음을 담았고 전국적인 차원의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모금액은 안산YWCA를 중심으로 한 대책 활동과 안산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5월 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YWCA 입장을 표명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유기족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섰다. (5월호 참고)

## 5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올해 의미 있는 수상자들이 선정된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5월에 올랐다. 대상은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김영란 법'을 발의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젊은지도자상은 탈핵운동에 앞장서 온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수상했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대한민국'과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이루는데 한국YWCA가 함께 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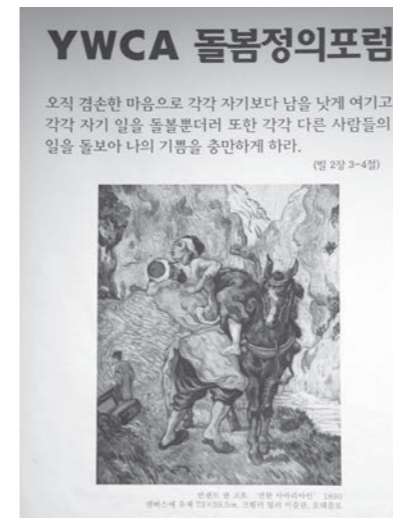
## 6 2014 YWCA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파견

올해 7월 YWCA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가 인도 살렘 지역에서 두 달동안 지역 여성과 아동, 빈민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과 영어 기초교육, 보건 및 인권교육,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파견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Y가 인도Y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9월호 참고)



## 7 2014 YWCA 청년평화캠프

2014 한국YWCA 청년평화주간을 맞이해 8월 13일부터 1박 2일간 대전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2014 YWCA 청년평화캠프'가 '우리가 만드는 평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국 25개 회원YWCA 소속 Y-틴, 대학청년Y 총 230여 명이 모여 우리 시대의 청년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평화선언문'을 작성했다. 청년성의 회복이 이 세대의 주요 키워드인 만큼 앞으로의 Y-틴과 대학청년Y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9월호 참고)



## 8 제4차~제5차 YWCA 돌봄정의포럼

정의포럼, 평화포럼, 생명포럼을 연간 순회 진행하고 있는 한국YWCA는 올해 총 5차례의 '2014 YWCA 돌봄정의포럼'을 통하여 돌봄을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Y, 대전Y, 광주Y에서 포럼을 진행해 돌봄노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회원과의 만남을 통해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 9 일본군 '위안부' 일억명 서명 연대활동

여성폭력추방과 평화구축을 위해 전 세계 YWCA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국YWCA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연대하여 '세계 일억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서명은 정대협과 세계YWCA 관계자를 통하여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6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전달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한국YWCA와 국민들의 뜻이 세계에 잘 전달되도록 이 문제에 지속하여 관심을 갖는 Y 회원들이 되길 기대한다.

## 10 2014 모금 워크숍 (6개 정회원YWCA 참석)

올해 6개 정회원YWCA(대전, 부산, 서울, 순천, 전주, 청주)를 대상으로 모금워크숍이 진행됐다. 6월부터 7월까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된 모금 워크숍은 대중 모금과 거액 모금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모금 워크숍 이후 9월 26일 후속 모임을 통해 각 회원Y의 모금사업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며 회원Y에서 모금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며, 정회원Y별 결과 보고는 월간(한국YWCA)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연합회 소식

## 성탄예배

12월 11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성탄예배를 드렸다. 안재웅 목사(한국YMCA 직전 이사장)를 모시고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진정한 평화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를 드렸다. 12개 회원YWCA와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실행위원, 실무자 등 120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추위지는 겨울 날씨에도 매주 화요일마다 명동은 탈핵 캠페인의 열기로 따뜻하다. 11월과 12월에는 대전Y(35차), 하남Y(36차), 춘천Y(37차), 세종Y(38차), 제천Y(38차), 천안Y(38차)가 주관으로 명동에서 캠페인을 했다.

##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협의회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협의회가 11월 21일(금)에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15개 회원YWCA 사무총장과 군산직할지부 사무국장, 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협의했다.

## YWCA 사무총장 확대운영위원회

YWCA 사무총장 확대운영위원회가 11월 21일(금)에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13개 회원YWCA 사무총장과 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2015 정기총회 제안, 사무총장 해외연수 기획단 구성 등을 협의했다.

## YWCA 소비자 모니터 교육

YWCA 소비자 모니터 교육이 11월 26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12개 회원YWCA에서 소비자 담당 실무자와 모

니터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비자 운동의 이해와 소비자운동가의 자세(서울Y 구항숙 상담원), 먹거리 안전 모니터링 방법, 자율분쟁조정과 소비자 상담으로 진행됐다.

## 임형주 평화홍보대사 공연 초대

팝페라 테너인 임형주 한국YWCA 평화홍보대사가 11월 26일(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로맨틱 콘서트 파이널리(FINALLY)'에 대학청년Y 회원들과 실무활동가, 청소년위원회 위원 등 60명을 초대했다.

## 일본 탈핵활동가 초청 간담회

12월 4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아오키 가즈마사(일본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사)와 기노 류이치(저널리스트) 등 일본 탈핵활동가를 초청해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 영화 '한민족 그리고 조선족' 개봉

한국YWCA의 100주년 기념 영화 중 두 번째 작품인 '한민족 그리고 조선족'이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12월 10일(목) 개봉했다. 이번 영화는 한국인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서로에 대한 생각을 대담이란 형식으로 나눈 다큐멘터리로 YWCA와 공동제작하고 전화성 감독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두 번째 영화이다. 수익금 전액은 YWCA 북한어린이돕기를 위한 분유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 연합회 군산직할지부 회관입주 감사예배

12월 12일 감사예배는 군산성암교회 서영철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으며, 서부지역위원회와 연합회 회장단, 실행위원이 참석했다.

## 동정

-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위촉 (2014. 07. 15) 김은주 (연합회 여성·성인지 위원)
-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 강남지역자활센터장 위촉 (2014. 11. 01) 안수경 (연합회 Y-틴 위원)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취임 (2014.11.28) 하영구 (후원회 이사)
-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2014. 12. 03)
  - 1. 청소년 보호 유공자 | 대구YWCA 공진희 부장 | 광주YWCA 박송희 간사 | 울산YWCA 문상순 회장 | 전주YWCA 정지나 청소년부 위원장 | 서귀포YWCA 이순자 부장
  -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사례 우수감시단 | 최우수상 - 전주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표 : 이영희) | 장려상 -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표 : 하선규), 제주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표 : 김신숙)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49주년 기념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청소년지도자 부문)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 (싱크머니 자문위원장)
- 2014년도 대한민국 청소년육성 대상 한국씨티은행
- 제10회 청소년부른성장대상 (기관 부문) 전주YWCA
- 채용
  - | 정은경 (울산Y 신임 사무총장 / 2014. 10. 1)
  - | 오경혜 (복지사업단 은학의집 관장 / 2015. 1. 1)
  - | 최유경 (복지사업단 은학의집 노인요양시설장 / 2015. 1. 1)

월간<한국YWCA> 11월호 13쪽 '2012 YWCA ITI준비위원'을 '2012 YWCA ITI준비위원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 회원YWCA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2014.11.25.~2014.12.10.)

### 광주YWCA

####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가정상담센터는 11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 1층 민원실 앞에서 남구청 여성이동복지과 담당공무원, 남부경찰서 경찰관, 여성폭력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가정폭력예방 및 추방에 관련한 표어가 적힌 판넬을 설치하고, 기관 홍보를 위해 가정상담센터 리플렛을 배부했으며,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세상은 폭력 없는 세상' 성폭력 추방 캠페인 인형극 공연

광주Y는 11월 29일(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YWCA대강당에서 자녀와 학부모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세상은 폭력 없는 세상' 성폭력 추방 캠페인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며 나아가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목포YWCA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아 거리 캠페인

목포YWCA는 12월 10일(수) 하당 장미의 거리 일대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과 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여성폭력의 피해사례와 예방 홍보물 전단지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폭력 근절메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다양한 여성폭력의 통념 OX퀴즈와 폭력추방을 지지하는 손바닥 그리기 및 응원의 글 적기 등 시민참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 성폭력 추방캠페인 - 침묵NO! 방관NO!, 성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



광주Y 성문화센터에서는 11월 27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유스퀘어 실내광장에 부스를 설치하여 성폭력추방서명운동과 성문화교구를 전시하여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19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북부

서울 YWCA | 성지희 간사

제1회 후원의 밤 개최



제1회 후원의 밤이 12월 4일(목) 서울Y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차귀숙 회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Y-비전나눔, 감사와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다. 특별히 초대된 150명의 후원자는 정성껏 준비된 만찬을 함께 나누며 서울Y의 서포터즈가 될 것을 약속했다. 유한김벌리, 외환은행, IBK기업은행 등 서울Y의 파트너인 기업담당자도 참여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기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인천 YWCA | 박인영 간사

대학청년Y 글로벌 리더십 강연



인천 대학청년Y는 11월 15일(토) 세계YWCA 이사인 연합회 원영희 실행위원을 초청하여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를 가졌다. 국제운동체인 YWCA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글로벌 리더십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국제무대로의 진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날 여성폭력 방지를 지지하는 'No Xcuses'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강릉 YWCA | 정경진 간사

교복나눔센터 '아띠' 개관식

11월 4일(화) '아띠' 개관식이 있었다. '아띠'에서는 재학생, 졸업생의

기증교복을 세탁, 수선하여 학교별로 분류하여 판매되며, 교복구입의 가계부담을 낮추고,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운영된다.



동해 YWCA | 김정은 간사

2014~15 정책회의

11월 24일(화) 본 회관에서 2014~15 정책회의를 실시했다. 2014~15년 한국YWCA 정책 및 6대 추진과제에 맞추어 각 위원회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정책수립 방향 제시를 통하여 2015년 지역사회를 위하여 동해YWC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획하고 새해에도 열정을 다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여성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속초 YWCA | 최홍실 간사

EM을 활용한 친환경세계 만들기

11월 28일(금) 'EM이 살리는 청정강원'이라는 주제로 EM녹색마을 대상으로 환경 및 EM교육을 실시했다. EM을 활용한 친환경세계 만들기를 통해 화학세계의 양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교육생의 환경 의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EM이 살리는 청정강원을 기대한다.

원주 YWCA | 윤정진 간사

에코스쿨 떠나자! 별나라로

11월 29일(토) 16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별 천문대' 체험학습에 참가했다.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별을 여러 종류의 천체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기가 좋고 하늘이 맑은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됐다. 주말에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해 교과서에서만 보던 성운과 행성들을 직접 눈으로 관찰했다. 단순히 설명을

듣는 활동이 아닌 자신의 몸을 이용해 별과 우주를 느끼고 천체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체험이었다.

춘천 YWCA | 이복희 본부장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12월 2일(화) 춘천YWCA는 서울 명동에서 화장과 직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탈핵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탈핵 서명서를 받으면서 탈핵운동에 동참하도록 권하였다. 오후에는 연합회에서 탈핵에 대한 강의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경기

고양 YWCA | 남궁혜경 국장

방사능 안전 고양네트워크 발대식

고양YWCA는 학교급식,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각 공공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식품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인지를 검사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고양시 공공급식시설 방사능 물질차단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지역시민단체들과 함께 타지역 조례들을 비교분석하며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기초적인 조례초안 작업을 하였으며, 고양시의 20여 개의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1월 19일(수) 방사능 안전 고양네트워크 출범시키는 발대식을 가졌다. 향후 고양시 상황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육 및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 YWCA | 황정아 간사

찾아가는 무지개인형극단 공연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성남Y '무지개 인형극단'이 11월 22일(토) 성남시 중원도서관으로 찾아가 몽골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형극 '수호의 하얀말'을 공연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도서관 행사에 초청되어 인형극 공연을 한 것으로, 무지개 인형극단이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원 YWCA | 정지영 간사

행복나눔 김장 담그기



11월 19일(수) KT&G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행복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Y회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봉사단 등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3,000kg의 김장을 정성껏 담갔다. 수원시 지역사회의 독거어르신과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에 김치를 전달했다.

안산 YWCA | 문성은 간사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인형극 공연과 기후교육

11월 18일(화)부터 12월 5일(금)까지 '늑대폭풍과 아기돼지 삼형제' 어린이 환경인형극과, 이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기후교육을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총 20곳을 찾아가서 진행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과 동화책을 활용한 기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였다.

안양 YWCA | 손혜진 간사

돌봄의 사회적 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



11월 26일(수) 동안벤처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돌봄의 사회, 돌봄의

권리라는 주제로 돌봄의 사회적 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시 여성단체, 돌봄종사자, 시공무원,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약 70명이 참석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이라는 주제로 정진주 박사(사회건강연구소 소장)가 주제발제를 하고, 임병우(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정미(한국YWCA연합회 부장), 고미순(안양YWCA 살림돌보미 회장), 김지선(돌봄서비스 이용자), 최병일(안양여성의 전화 대표)의 지정토론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제고하고 다각도의 입장에서 돌봄에 대한 요구와 제안사항을 발표하였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애들이 건강한 밥먹자**

11월 12일(수) 의정부 기능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한 먹거리 교육을 통해 가정의 식탁의 변화와 건강한 음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진행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첨가물이 들어간 가짜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과정을 확인하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아동과 함께 고민했다. 500여명의 아동과 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평택YWCA** | 정혜근 간사

**독거어르신 위한 키다리학교 청소년들의 김장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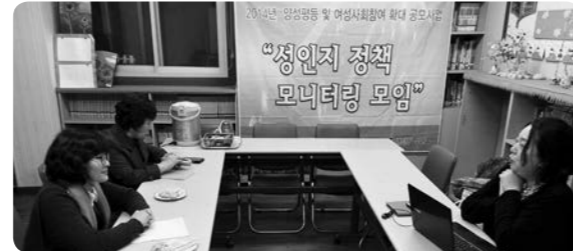


평택YWCA 키다리학교 학생들이 지난 11월 15일 열린 체험농원에서 관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열린체험농원 박성숙 대표가 직접 재배한 재료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독거어르신이 거주하는 19가구에 집집마다 배달하며 나눠드렸다. 키다리학교 청소년들은 힘들었지만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어르신들에게 나누어드릴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으며, 이번 김장체험행사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중부**

**대전YWCA** | 김지찬 간사

**성인지정책 모니터링 활동**



대전YWCA는 상반기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요원 양성과정 수료생 10여 명과 하반기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7월부터 11월까지 5회기에 걸쳐 정기 월례 모임을 통해 대전지역 전통시장 및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로당 등의 실태 조사 및 주민 인터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중장년 여성들의 자세 등에 대해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모니터링 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적인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개선점에 대해 나누며 앞으로의 변화를 계획했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사랑 나눔을 통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제천YWCA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11월 8일(토) 동해안에 다녀왔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민들레모임을 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연탄지원을 했고,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을 보다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나눔과 사랑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청주YWCA** | 김지현 간사

**50주년 기념 생명·평화 콘서트**

11월 28일(금) 청주YWCA 50주년기념 생명·평화 콘서트가 청주에

솔의전당에서 열렸다. 청주YWCA에서 12년 만에 갖는 재정모금행사로 이날 많은 관객들이 참석하였으며,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준 청주YWCA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생명·평화 운동에 더욱 앞장서기를 다짐한다.

**충주YWCA** | 김애영 부장

**북한어린이에게 생명을 분유보내기 성금모금 음악회**



YWCA 주력운동중 하나인 평화운동을 11월 23일(일) 충주남부교회에서 분유보내기 성금모금 음악회로 펼쳤다. 성도 200여명이 참석해 충주Y여성합창단, 찬무단,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찬양을 하였고 특별출연으로 조길형 충주시장의 트럼펫 연주가 있었다. 음악회 후에는 성도들에게 분유팩을 나누어주어 생명살림의 모금에 동참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작은 소리들을 모아 이 땅의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산YWCA** | 김화선 팀장

**창립 14주년 후원의 날**

논산YWCA는 올해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였다. 11월 20일(목) 논산N노블레스 웨딩홀에서 Y회원과 자원지도자, 교회 담임목사,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을 초대하여 YWCA 영상과 갤러리가 있는 식사 초대와 지역 로컬푸드 착한판매 등의 후원 행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YWCA 정신으로 정의와 생명세상을 위해 앞장서며 생명사랑공동체 운동을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세종YWCA** | 홍진영 팀장

**세종YWCA·세종YMCA 연합기도회**

세종 YW/YMCA 연합기도회가 11월 14일(금) 세종YMCA에서 있었다.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기도회 이후 친교의 시간으로 소식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다.

**천안YWCA** | 이연주 대리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먼길 돌아온 나의 드림래시피 완성기'**

2014년 천안시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함께하는 행복프로젝트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한 '먼길 돌아온 나의 드림래시피 완성기'가 각 분야(학습, 환경, 운동, 취업/진로) 전문멘토와 대학생멘토들과의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11월 29일(토) 볼링대회를 진행했다. 12월 3일(수) 평가회로 2014년 활동을 마무리한다.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했던 활동이었던지를 깨닫게 되어 기쁘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어 감사하다.

**서부**

**광주YWCA** | 김해정 간사

**살림·김장돌보미 교육**

11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본회 6층 강당에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살림·김장돌보미 교육을 가졌다. 교육내용은 김장재료 구입방법, 절임배추 준비, 배추절이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장돌보미는 11월 24일(월)부터 12월 9일(금)까지 신청 기간이었으며, 1일 8시간씩 이용 가능하다. 김장돌보미들의 활동을 통해 김장철 주부들의 손길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YWCA** | 이향재 간사

**직원연수**



11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전주로 직원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삶속의 감사'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2014년 사업보고를 통해 2015년에도 목표와 계획을 고심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Y정체성을 확립하며, 즐겁고 하나되는 시간을 보냈다. 편백 숲과 전주 한옥마을을 탐방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YWCA | 김은진부장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축제



11월 22일(토) 전북하나센터에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2014년도 전북하나센터 한마음체육대회'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북한이탈주민 150여명은 전주YWCA 회원들과 어울려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한 한 이탈주민들은 처지가 같은 고향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 식사도 하고 운동하니 좋았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주는 앞으로 한마음 체육대회가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익산YWCA | 장윤미간사

함께하는 연주회 행복한 마음



경로효친사상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YWCA 합창단이 효사랑 실천을 위해 11월 21일(금) 백세요양원을 방문하여 합창과 오카리나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하고 후원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봉사를 실천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창공연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목포YWCA | 광수현부장

추수감사절 예배

목포YWCA어린이집에서는 11월 17일(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김애자 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위원, 원아 등 총 101명이 YWCA어린이집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 날에는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모금의 일환으로 10월 17일부터 85명의 원아들이 조금씩 모은 저금통을 모아서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원아들이 가져온 과일과 곡식들은 어린이집 주변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하였다.

순천YWCA | 신현아간사

치유의 하나님, 하나되는 공동체



11월 9일(일)부터 10일(월)까지 장흥 우드랜드에서 2014 순천YWCA 이사직원연수회를 진행했다. 지원지도자 및 직원들이 하나되는 공동체 시간동안 이천진 목사의 영성훈련을 통해 실무자와 지원지도자와의 화합과 YWCA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1박 2일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한 연수회였다.

여수YWCA | 김상희간사

2014 세계YWCA/YMCA 기도, 국제친선주간 공동기도회

세계YWCA/YMCA 기도 및 국제친선 주간을 맞아 11월 13일(목) 여수YWCA회관 대강당에서 YMCA와 함께하는 공동기도회를 진행했다. YMCA이사장 최연석 목사의 말씀과 YWCA직원총창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두 기관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이번 여수YWCA/YMCA 공동기도회는 20여 년 만에 부활되어

의미를 더하였고, 앞으로 계속 이어가자는 다짐의 시간도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공동기도회를 마쳤다.

제주YWCA | 장진우간사

감정근로자를 위한 근로의욕 증진프로그램

12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이틀간 제주 그라벨호텔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정근로자 근로의욕 증진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주Y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노사민정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귀포YWCA | 김수진간사

천연염색 프로그램 '자연빛에 물들다'

11월 19일(수)부터 12월 2일(화)까지 총 10일간 수강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연염색 프로그램 '자연빛에 물들다'를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제주도 녹색생활실천지원사업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교육을 통해 천연제품에 대한 관심과 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제품은 수료 후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된다.

동부

대구YWCA | 김세형차장

WE풍(風)당당 바자회



11월 26일(수)부터 12월 1일(월)까지 '대구백화점과 함께하는 WE풍(風)당당!! 대구YWCA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WE풍(風)당당!!(우리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당당한 여성)을 뜻한다. 바자회 수익금은 재개발국가 여성지도력 지원과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운동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주)민들레가

계 업사이클링 상품을 전시, 판매하여 대구시민들에게 환경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부산YWCA | 하경량간사

생명나눔음악회

부산YWCA 생명나눔음악회가 11월 20일(목)에 열렸다. SBS 김정책 단장과 함께 SBS오케스트라, 국악신동 송소희, 한류스타 KoN, 성악양상블 인치엘로, 여성보컬트리오 카메차가 출연한 음악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부산YWCA의 생명운동을 알리고, 부산시민에게 멋진 가을밤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다.

울산YWCA | 김선양팀장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교통음악회



11월 28일(금) 오후6시 현대백화점(울산점) 토포즈홀에서 울산 시민 250여 명이 함께 하는 대중교통음악회를 진행했다. 울산광역시와 함께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이효상의 지휘로 T.I.F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여 깊어가는 가을밤 따스한 추억을 선사했다. 대중교통이용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우리의 작은 실천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포항YWCA | 황혜민간사

폭력피해여성·아동 겨울나기 의류 대 바자회

11월 14일(금)부터 18일(화)까지 5일간 포항 롯데백화점에서 폭력피해여성·아동 겨울나기 의류 대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후원업체인 벨리시앙이 동참한 가운데 회원들의 사랑이 모여 폭력피해여성과 아동에게 행복의 밑거름이 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거제YWCA | 김의향부장

실버합창경연대회

제회 거제YWCA 실버합창경연대회를 11월 27일(목) 거제문화예



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실버세대가 느끼는 문화적 소외감 해소와, 노년기 여가문화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다. 총 8개팀이 참여하여 최우수상은 옥포종합복지관 은빛소리합창단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거제시 최초 실버합창경연대회라는 의미를 가지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따뜻한 합창대회가 되길 기대한다.

**김해YWCA** | 배정숙 부장

**구인·구직 여성 만남의 날**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12월 3일(수) 기업체와 구직자 간의 채용의 장을 마련하여 '구인·구직여성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지역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해 현장면접을 진행해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사에는 가족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도시가스감해고객센터, 동광산업, 로얄코리아(주) 등의 기업체 6곳과 구직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환경사랑 음악회 'Green Harmony'**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자연을 노래하고, 환경사랑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11월 21일(금) '환경사랑 음악회'를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진행했다. 1년 동안 음악회를 위해 쉬 없이 달려온 단원들의 3부에 걸친 합창공연과 특별출연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한편 이날은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으로 단원들이 손수 만든 아크릴수세미를 판매하여 기금마련을 했다. 연합회 한미미 실행위원이 참석하여 합창단을 격려했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친환경 유기농 쌈채소 재배지 견학**  
사천YWCA 소비자상담실에서는 11월 18일(화) 주부회원 30명이 참석하여 사천두레농장에서 친환경 유기농 쌈채소 뜯기와 계란 꾸러미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이 체험으로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와 신뢰도를 높여 소비촉진 향상을 기대한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여성 공감 힐링 콘서트**  
11월 22일(토)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여성이 만드는, 여성을 위한 공연으로 '여성 공감 힐링 콘서트'를 펼쳤다. 이날 공연은 양산YWCA 민들레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요학교와 다듬이소리극단이 무대에 올랐다. 1부에서는 민들레동요학교가 귀에 익은 동요를 선보였으며, 2부에서는 다듬이소리극단이 저마다의 아픈 사연으로 죽음을 선택한 여섯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사인'을 공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창단한 다듬이소리극단은 창단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연기로 웃음과 눈물샘을 자극해 관객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진주YWCA** | 고명정 팀장

**평화나눔 콘서트**  
진주Y는 탈핵, 다양성(다문화), 나눔, 돌봄 각 영역에서 함께 활동한 회원,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긴 호흡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활동보고회를 겸한 평화나눔 콘서트를 열었다. 11월 18일(화) 경남과기대 100주년기념관 아트홀에서 열린 콘서트는 보고와 공연,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8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Y회원의 탈핵보고서, 이주여성들의 재개발할 기획으로 진행되는 함께 웃는 다문화, 에너지강사그룹의 공유경제이야기, '나눔찬(나누어 먹는 반찬)' 프로그램 자원활동가들의 '진주Y의 화요일' 퍼포먼스도 있었다.

**창원YWCA** | 정미영 간사

**청소년들을 위한 공유경제 및 건강간식만들기 프로그램**  
창원Y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사파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유경제 및 건강간식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무분별한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공유경제를 친근하게 알리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해나가도록 도왔다. 리폼을 통해 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제품을 새로운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직접 간식을 만들면서 신선한 재료에 대해 알려 주었다.

# 2014 월간<한국YWCA> 목차 색인

이달의 생각				
제목	필자	월	쪽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한국YWCA	차경애	1+2	04	
핵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한영수	3	04	
한국YWCA 창립 92주년 기념사	차경애	4	05	
YWCA회원, 생명 위기 시대의 파수꾼	이명혜	5	05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한 YWCA 운동성	원영희	6	04	
평화는 지키는 것일까, 만드는 것일까	한미미	7+8	04	
함께 나누고 같이 하여 '우리들의 평화' 만들자	이은영	9	04	
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김경희	10	04	
우리는 정말로 평등한가	함희경	11	04	
한해를 보내며 잊지 말아야 할 것	문권희	12	04	

월례아침기도회				
제목	필자	월	쪽	
신년예배 - 아담아(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장윤재	1+2	05	
온전히 하나되게 하소서	최대광	3	05	
시대의 징조	최대광	4	04	
노래하랴 생명과 성령의 바람	이훈삼	6	05	
아름다운 물음	이훈삼	7+8	05	
생명위기의 시대 - 공감과 연대의 지도력으로	최만자	9	05	
부끄러움의 미덕	안선희	10	05	
매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김은혜	11	05	
성탄예배 - 그리스도 주님 만나기	안재용	12	05	

특집				
제목	필자	월	쪽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1+2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		3		
동북아 평화 거처 통일한국까지		4		
생명 위기 시대		5		
돌봄의 위기, 그 가치와 의미를 찾다		6		
전력수급정책의 허와 실		7+8		
청년과 평화 그리고 통일까지		9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		10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11		
2015년 여성·탈핵 관련 정책 미리보기		12		

기획				
제목	필자	월	쪽	
생명존중과 공감이 사라진 현장	최만자	5	08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	이영재	5	10	
세월호 침사를 바라보는 한국YWCA	강교자 외	5	12	
2015 여성 정책 - 여성가족부 2015년 예산(안)	편집실	12	08	

탈핵				
제목	필자	월	쪽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의 의미와 계획	이윤숙	3	08	
제1차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스케치	편집실	3	10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서명	편집실	3	12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시설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편집실	4	28	
부천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	송록희	5	32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 참여하며	김은희	5	34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진정성 없다	진상현	7+8	08	
'녹색교회'를 향한 '절전은 곧 발전'의 길	유미호	7+8	10	
시민의 힘으로 고리(호)기 폐쇄!	이윤숙	7+8	12	
움직이는 탈핵학교 - 청소년 탈핵강사 양성과정	윤경민 외	7+8	30	
탈핵 운동 1년의 성과와 과제	한영수	10	08	
전국 51개 지역 회원YWCA 200여 명 노후 핵발전소 폐쇄 촉구 결의회	편집실	10	12	
고리(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한 전국집중행동	편집실	11	34	
2015 탈핵 정책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전환	이유진	12	10	
YWCA의 2015년 탈핵운동	이윤숙	12	12	

평화통일				
제목	필자	월	쪽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전달 출항식	최수신나	1+2	30	
'필리핀에 희망을', '북한어린이돕기'	편집실	1+2	34	
북한어린이에게 희망과 사랑을!	편집실	3	18	
일본군 성노예문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다녀와서	한영수	4	12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연변	배정미	4	14	
이산가족 상봉 현장	김영순	4	16	
신민주 출신 어머니의 유산이 큰 사랑으로	조영미	6	32	
먼 훗날의 평화, '유적만능 바자회'	김주영 외	7+8	36	
한반도 정세와 통일연애론	정옥식	9	13	
서울, 워싱턴, 평양을 잇는 평화의 기도회	편집실	9	15	
식량위기로 북한어린이 영양결핍 심각	김주영	9	40	
유치원에서부터 '집단 교육'을 받는 북한 어린이들	김주영	10	38	
마을에서 벌이는 작은 실천	부천YWCA	11	40	
익산YWCA 북한어린이돕기	최한자	12	36	

대인교육과 청소년운동 활성화				
제목	필자	월	쪽	
Y-틴 전국협의회	조은선 외	1+2	32	
필리핀 타클로반 구호봉사를 다녀와서	윤소라, 김용진	3	28	
키다리학교 입학식	이예지, 고대성	4	27	
YWBS 인터넷 방송국	김다혜 외	7+8	32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정서연	7+8	23	
이 시대의 청년을 품으라	김은혜	9	08	
2014 YWCA 청년평화캠프	편집실	9	10	
2014 키다리 연대캠프	편집실	9	30	
제6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손지수, 김광식	9	32	

성인지				
제목	필자	월	쪽	
2014 경기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박동순	5	31	
성인지 통계: 성별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및 여성비율	편집실	7+8	38	
성인지 통계: 남녀 청소년의 의식 조사	편집실	9	39	
성인지 통계: 성별 이공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편집실	10	16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토론회	박동순	11	31	
성인지 통계: 대졸자 성별 취업률 통계 비교	편집실	12	14	

돌봄노동권 확보				
제목	필자	월	쪽	
돌봄노동의 성서적 이해	최만자	6	08	
돌봄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와 가치	엄영란	6	10	
돌봄노동과 YWCA	김영희 외	6	12	
제3차 YWCA 돌봄정의포럼	편집실	7+8	29	
제4차 YWCA 돌봄정의포럼	정서연	10	27	
제5차 YWCA 돌봄정의포럼	정서연	12	27	
2014 돌봄노동조합 해외 연수·돌봄 임원 워크숍	김영미, 엄계현	12	28	

여성폭력예방				
제목	필자	월	쪽	
제8회 한·일YWCA협의회	다카자토 슌조, 유수정 외	1+2	26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화	윤미향	4	10	
회원YWCA 여성주간행사	회원YWCA	7+8	41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장미혜	11	08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김은혜	11	10	
여성폭력 추방을 향한 세계 연대	원영희	11	12	
회원Y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회원YWCA	12	41	

캠페인-탈핵				
제목	필자	월	쪽	
제1편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김익중	1+2	18	
제2편 핵사고의 원인	김익중	3	24	
제3편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김익중	4	18	
제4편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김익중	5	16	
제5편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김익중	6	16	

제6편 방사능 오염 식품 피폭이 가장 커	김익중	7+8	18
제7편 고준위(高準位) 핵폐기물	김익중	9	18
제8편 경주 방폐장	김익중	10	18
제9편 핵 재처리, 해서는 안 된다	김익중	11	16
제10편 전기 수요 줄이면 탈핵 가능하다	김익중	12	16

칼럼-여성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이유명호	1+2	20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II	이유명호	3	22
돌봄의 능력, 우리 모두의 것!	백소영	4	20
현대 기독교 여성,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주체'	백소영	5	18
한국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의미	김은경	6	18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와 발전을	박선영	7+8	24
일하는 여성의 이슈는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슈	이은영	7+8	26
막장 드라마 그만 보고 싶다	이경순	9	20
음악 예능 프로그램 속 성역할 들여다보기	전소영	10	20
TV 드라마 속 여성은 가짜다	윤세민	11	18
드라마 '밀회'로 읽는 2014 여성 담론	김미라	12	18

칼럼-인권			
인권이야기	김정린	1+2	22
세계인권선언	김정린	3	20
국제인권조약 I	김정린	4	22
자유권규약에서 '자유'의 의미	김정린	5	20
가장 진인한 고문 성폭력, 가정폭력	김정린	6	20
정책수립과 실행의 과정, 정책의 결과가 인권 증진 이루도록	김정린	7+8	20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	김정린	10	22
내 안의 편견과 싸워야 인종차별적 정서 극복 가능	김정린	11	20
매일 매일이 인권의 날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	김정린	12	20

칼럼-청년			
대학·청년Y는 6대 중점 고민이 있다!	이지은	1+2	24
경험으로 나를 만들어가다	이지은	3	26
YWCA와 함께 자라온 5남매 Story	세종Y 대학(김주영 외)	4	24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여수Y 대학(김리원 외)	5	22
연애와 결혼, 현실의 벽을 마주하다	청주Y 대학(김남규 외)	6	22
애들아, 가만히 있지 마	전주Y 대학(박요한)	7+8	22
욕심 없는 평화 세상을 꿈꾸며	인천Y 대학(권승준)	9	22
'나'같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	서울Y 대학(이예진)	10	24
동부지역 대학청년YWCA 회원의 밤	울산Y 대학(윤나라, 심승희)	12	22

이달의 현장			
2014년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편집실	4	26
북부·동부지역 회원대회	편집실	5	26
중부·서부지역 회원대회	편집실	6	24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주철환	6	26
경기지역 회원대회	편집실	7+8	28
2014년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편집실	9	27
찾아가는 친친 와이파이즌 - 충주 중원중학교	편집실	10	28
세월호 기도회와 생명명화 도보 순례	편집실	10	30
제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편집실	11	24
2014 씽크머니 미래 발전 심포지엄 · 금융교육회의	편집실	11	26

교육 / 연수 / 워크숍			
YWCA 어린이집 조리사 역량강화 워크숍	권미숙, 임성숙	4	30
2014년 YWCA 어린이집 원장 생태교육 워크숍	신희정	6	28
2014 YWCA 복지관, 자활·노인센터 직원연수	편집실	9	28
북한어린이들기사업단 워크숍	장미란	9	29

2014 모금워크숍	조영미	9	34
2014년도 제2차 1단계 실무자 교육	김수연	10	26
2014 YWCA 청소년 활동가 연수	장윤미, 이지은	11	22
YWCA 여성 담당 활동가 워크숍	김재현	11	28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연수	박성숙	11	30
순천YWCA 모금워크숍 후속 보고	김정민	11	32
대전YWCA 모금워크숍 후속 보고	대전YWCA	12	32
YWCA 어린이집 중견 교사 연수	윤량, 오선희	12	34

이달의 묵상			
평화의 놀이	이찬진	1+2	14
살림의 기운	이찬진	3	13
생명의 바람	이찬진	4	31
보이지 않는 세계	이찬진	5	35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	이찬진	6	29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라	이찬진	7+8	14
거룩한 선택	이찬진	9	24
비움과 채움	이찬진	10	31
하늘 냄새	이찬진	11	35
우월함과 영접	이찬진	12	24

지역운동이야기			
왜 지역운동인가	명진숙	1+2	37
지역,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자!	최수신나	3	33
YWCA는 사람입니다	명진숙	4	34
현장을 통해 보는 Y아카데미 지역 교육	최수신나	5	38
목포YWCA 뜨겁게 꿈꾸고 운동하라	편집실	7+8	34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2기 활동보고	김은경 외	9	35
YWCA 중견 실무자 네트워크	최수신나	10	36
YWCA 중견 실무자 영성훈련	최수신나	11	38

사회적기업			
유럽의 사회적 경제기관과 돌봄 사회적기업 탐방	구정혜	3	30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윤리적 소비 캠페인	장원찬	10	34
2014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 연구보고회	이혜련	12	30

인터뷰			
한국YWCA전국연맹 창립 100주년 기념 인터뷰	편집실	4	06
인도YWCA 라일라 파사 사무총장	편집실	5	24

YWCA성명서 / 입장 / 선언문 / 결의문			
한일YWCA협의회 오키나와 공동성명서		3	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		5	04
2014 YWCA 청년평화캠프 평화선언문	참가자	9	12
고리호기, 월성호기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YWCA 결의문	참가자	10	14
핵 정책과 원전 건설에 대한 예방통합 촉의 입장	편집실	10	15

화제의 책			
동물권은 생명권	장윤재	10	40

기타			
세계YWCA/YMCA 기도와 국제친선주간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편집실	11	14
2014 한국YWCA 10대 뉴스	편집실	12	39



###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세』 창간호

발행처: 한국YWCA연합회

4월 20일 창립 92주년을 맞아 한국YWCA 정론지 『여·세』 창간호를 발행했다. 『여·세』는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여성들의 세력',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여세!' 등의 의미로 한국YWCA의 목적 즉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기독교여성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바를 찾는 한국YWCA 정론지이다. 창간호에서는 생명살림과 여성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특집대담, 포스트후쿠시마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에 대해 다루는 '생명위기와 이 시대 우리의 삶' 특집기획 등의 칼럼을 만날 수 있다.



### 여성의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

발행처: 한국YWCA연합회 (부산YWCA가 발행한 '어머니란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의 2판본)

YWCA가 탈핵운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2014년 전국 52개 회원YWCA가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다. 10만 YWCA 회원들이 탈핵을 외치는 이유, 그리스도 신앙으로서 핵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탈핵생명운동의 의미, 핵발전소 안전신화의 거짓과 진실, 독일과 같이 탈핵 대안에너지 사회를 실현해가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가 담겨 있다.



###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세』 2호

발행처: 한국YWCA연합회

창간호에 이어 11월 28일 『여·세』 2호가 발행됐다. 2호에서는 '세월호 시대, 생명과 돌봄'을 주제로 공공의 가치를 상실한 '세월호 시대'에 우리 사회를 새로 세울 토대로 '돌봄가치'를 살펴본다. 총론 '세월호-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서는 생명-돌봄이 가진 복합적 의미, 돌봄윤리의 성서적 의미를 풀어냈다. '생명과 돌봄, 출발선에 서다'에서는 YWCA 돌봄회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다루고, 보편적 복지로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전국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이외에 온라인서점(알라딘, 예스24, 11번가) 등 총 56개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구입은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02-774-9704)로 문의 하면 된다.



### YWCA 자원활동가 교육표준안/2014-2015 한국YWCA정책 안내서/한국YWCA 6대 과제

발행부서: 연합회 Y아카데미

'YWCA 자원활동가 교육 표준안' 회원YWCA의 지도력 양성을 위해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이사 교육 매뉴얼을 발행했다. 또한 '2014-2015 한국YWCA정책 안내서'와 '한국YWCA 6대 과제'를 통해 YWCA 회원들이 6대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지역 현장에서 회원Y 운동을 의미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